

연방대법원, 용의자 DNA 채취는 합헌 판결

최신식 과학 기술과 전통적 사생활 보호의 대립

범죄 사실이 확정되기도 전, 즉 체포만 되어도 DNA가 채취돼 주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면 분명한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수정헌법 4조에서 부당한 수색과 압수, 구금을 금지하는 사생활 보호 규정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과학 기술과 접목돼 나날이 발전하는 범죄 수사 방식과 이 전통적인 사생활 보호권의 충돌 문제가 연방대법원에 올라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3일, 범죄 용의자의 DNA를 채취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문제에 대해 진보와 보수로 갈린 대법관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인 끝에 5대 4로 합헌 결정이 발표됐다. 이 판결로 인해 이제는 중범죄가 발생했다면,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그의 범죄 사실이 확정되거나 기소된 상태가 아니라도 면봉을 사용해 입 안의 DNA를 채취할 수 있다. 물론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다.

2003년 메릴랜드에서 복면의 남성이 한 여성을 강간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지만 피해 여성의 몸에서 범인의 DNA를 채취해 보관했다. 그러다 6년 뒤에 폭력 혐의로 체포된 알론조 킹에게서 DNA를 채취하다 그가 바로 그 강간범임을 확인했다. 킹은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폭력 혐의로 체포됐을 때 경찰이 DNA 채취와 관련된 영장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영장이 없더라도 긴급히 DNA를 채취하지 않으면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는 근거 없이 이를 수행한 것이다.

메릴랜드 주 항소법원은 수정헌법 4조를 들어 킹의 DNA 조사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메릴랜드 주는 연방대법원에 이 문제를 제소했고 하급법원의 판결이 뒤집혀 버린 것이다.

이 심리에 대해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수십년 만에 범죄 수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논쟁”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이번 논쟁은 범죄 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최신식 기술과 오랜 사생활 보호권과의 충돌인 셈이었다.

메릴랜드 주는 “경찰이 DNA를 채취하는 것은 지문 채취와 비슷하며 킹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범죄 사건 해결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맞섰고 킹 측은 “지문 채취는 수사 목적이 아닌 신원 확인 목적인데 경찰이 지문을 수사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용의자를 대상으로 한 DNA 채취가 합법화 될 경우, 시민들의 권리가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 강조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메릴랜드 주의 변론에 힘을 실어 “경찰이 상당한 혐의가 있는 범인을 체포할 때 DNA를 채취하는 것은 용의자의 사생활을 찌꺼기 지문을 채취하는 것처럼 상당한 사리에 맞다”고 판시했다. 알리토 대법관은 DNA 채취를 “21세기형 지문 채취”라고 칭했다.

그러나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을 비롯한 4명은 “이 판결은 수정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침해하고 DNA 채취라는 폭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항의했다.

김준형 기자



“입양은 축복입니다” = 우리 아이들은 우리 손으로 거두자는 취지 아래 공개입양문화를 정착해온 엠팩(MPAK·한국입양홍보회·대표 스티브 모리슨)이 지난 25일 라구나니구엘리저널파크에서 남가주 한인 입양가족 150여명을 초청해 야외축제를 벌였다. 이날 입양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활짝 웃고 있다.

베델한인교회 후임에 김한요 목사 내정

오는 12일 제직회 열고 최종 결정

어버니 베델한인교회 제4대 담임으로 김한요 목사(세리토스장로교회)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베델한인교회 관계자는 김한요 목사가 청빙위원회의 청빙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베델한인교회는 이에 오는 6월 12일 제직회를 소집해 김 목사의 청빙에 대한 최종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추구해온 김한요 목사는,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졸업하고 코네티컷 하트포드장로교회에서 10년간 목회했다.



김한요 목사

2005년 9월 황보연준 목사 후임으로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으로 취임해 교인 수 2배 이상의 규모로 부흥시켰다.

“남가주에서 가장 잘 나가는 1.5세 목회자”, “탁월한 설교가” 등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 붙을 만큼, 영적 각성을 위한 목회에 전념하는 목회자로 정평이 나 있다.

베델한인교회는 손인식 목사가 1990년 11월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래 출석교인만 5500명이 넘는, 남가주 한인교계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손 목사가 은퇴 계획을 밝힌 이후 5개월 동안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해왔다.

손인식 목사는 올해 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임 목회자가 부임하는 순간부터 열정적인 목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며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점프 10000’(출석교인 수 1만명 달성)를 후임자가 이뤄낼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손 목사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13년 12월 말 65세 정년을 맞이 은퇴하고, 내년부턴 선교사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정하나 기자

LA드림오케스트라 <2013 스칼라십 어워드 콘서트> 연다

남가주 일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LA드림오케스트라(지휘자 다니엘 석)와 오페라 동호회 ‘보헤미언스’가 오는 6월 15일 오후 7시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임마누엘처치 웨스트민스터채플(3300 Wilshire Blvd., LA·갈보리민음교회)에서 ‘2013 스칼라십 어워드 콘서트’를 개최한다.

실력있는 젊은 음악인들을 육성하고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어워드 콘서트 무대에는, LA오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14세 소프라노 골다 버크만(Golda Berkman)을 비롯해 한인 바리톤 조셉 임, 테너 김학수, 클라리네스트 김상윤 등이 나선다.

이들 신예 음악인들은 이번에서

영화 <마농의 샘>의 배경음악 등으로 친숙한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을 비롯해 바그너 <탄호이저> 서곡, 베버의 클라리넷 콘체르티노, 베르디 <리골레토> 제3장 ‘라 돈나 에 모빌레(여자의 마음)’, 푸치니의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비제의 <진주조개잡이> 중 테

너와 바리톤 이중창 ‘성스러운 사원’,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등 주옥같은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콘서트 티켓은 40달러.

▷공연 문의:

ladreamorchestra.com/(323) 636-2788

정하나 기자



(왼쪽부터) 다니엘 석 지휘자, 클라리네스트 김상윤, 바리톤 조셉 임, 테너 김학수, 소프라노 골다 버크만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나라정비 ASE 유렵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오토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교역자 10%할인해 드립니다.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증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는 6월 15일)

> 한영이증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토랜스선한목자장로교회 김현수 목사 인터뷰

개혁 초기부터 본질을 잃지 않고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게 그의 꿈이자 목표였다. 터를 닦은 지 딱 3년이 지났을 때, 당초 약속대로 선교사를 파송했다. 중국과 태국, 캄보디아, 터키, 인도, 파키스탄 등 죄다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으로만 골라서 말이다. 토랜스선한목자장로교회 김현수 목사 얘기다.

전형적인 이민가정에서 성장한 1.5세인 김 목사는, 우직하리만치 '선교 제일주의'를 고집한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출신인지라 복음주의적인 성향이 짙다. 교회의 사명은 모름지기 '선교'에 있다는 전제 하에 교회 한 달 예산의 3분의 1을 떼내어 선교에 투자한다. 개혁할 때부터 그리 하기로 여간 쉽지 않았을텐데, 김 목사는 “비전을 세우고 밀어붙이니 되더라”면서 나름 소박하면서도 담백한 답변을 내놓는다.

1세와 2세 사이에 '낀 세대'로서 그는 늘, 어떻게 하면 브릿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교회 내 세대간 화합은 이미 슬로건이 된 지 오래였다. 하지만 아직도 적지않은 1세들의 시각이 “2세는 뭘 모른다”에

국한돼 있는 게 사실이다.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2세, 3세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중간자적 입장에서 바통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러한 나름의 목회 철학을 갖게 되기까지 그도 교육목사와 영어목회(EM)를 거쳐왔다.

현재 토랜스선한목자장로교회는 2세 교인수만 해도 350명 정도로 중대형교회에 속하는 규모이지만, 외국교회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셋방살이 신세다.

명색이 11년 된 교회인데 아직 번듯한 자기 건물 하나 없다는 게 서러울 법도 하지만, 되려 교인들은 선교라는 키(Key)로 푼뜰 문져 오로지 영혼 구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으니 행복하다는 표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건축 계획이 없는 건 아니다. 선교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제 조금씩 건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여타 1세 목회자에 비해 2세에 대한 공감도가 높은 그가 보는 1세와 2세(EM) 목회 포인트란 이렇다. EM은 아직 1세의 영향력을 벗어나기엔 역량이 부족하고, 1세 또한 2세 없이는

나홀로 존립하기가 어려운 게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 그러나 결론적으로 1세가 2세를 잘 끌어줄 수 있도록 목회하는 것이 중요할 밖에.

“2세 독립이요? 글썄요. 제가 볼 땐 3세나 가서는 독립할 지는 몰라도 2세에선 서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1세와 2세가 함께 가야하는 거죠. 이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하는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요.”

처음 1년은 기도하면서 1세 목회를 개척했고, 동시에 EM 양성을 위해 3년간 직접 발로 뛰며 도왔다. 개혁 초기라 엄청 바빴지만, 이민교회 내 트라우마처럼 존재하는 아픔을 치유하고 보듬는 사역을 위해, 1세와 2세가 한 지붕 아래 공존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선 그게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가 '선교가 제일'이라고 누누히 외치는 이유는, 여기 또 하나 있다. 교회의 존립 목적이 바로 '그것'에 있기 때문이기도 할데지만, 2세 교육을 위해서도 선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2, 3세들이 '아, 우리교회가 정말 세계를 품는 교회구나' 하는 인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제3 세계도 보여주면서 선교 마인드를 심어주고자 하는 거죠. 미국사회 내에서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 간에,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정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 탓인지 2세 사역 서포터 차원에서 EM 사역자에 대한 대우 또한 남다르다. 토랜스선한목자장로교회는 교인수 1백명이었을 때에도 교역자가 6-7명이나 됐다. 물론 사례비도 대형교회 못지 않을 정도였으니, 교역자들 사이에선 꽤 매력있는 교회로 통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보통 2세 사역자들이 8개월에서 1년 새 교회를

옮긴다 치면, 이 교회에선 평균 최소 3년 이상은 사역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한 교역자는 10년째 해오고 있기도 하다.

올해 나이 정확히 50살인 그는 앞으로 딱 10년만 더 목회하고 은퇴할 계획이란다. 은퇴를 영어로 하면 '리타이어', 너무 늦게 하면 타이어를 바꿔 끼우는 게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에 은퇴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한 목회 경험을 살려 1.5세, 2세의 멘토로 그들을 돕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정하나 기자

제9회 커피브레이크 국제컨퍼런스 열린다

제9회 한인커피브레이크 국제컨퍼런스가 오는 2013년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캘리포니아 앨버틴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개최된다. 컨퍼런스 주제는 '고통에서 소망으로(Hope, when we are hurting)'이며, 시편을 본문으로 한다. 참석대상은 소그룹 성경공부에 관심있는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 4백명이다.

컨퍼런스 강사로는 커피브레이크의 창립자인 앨빈 밴더그린(Alvin J. VanderGriend) 목사와 양촌길 목사(뉴저지필그림교회 담임) 등이 나서며, 컨퍼런스를 통해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 도구인 성경발견학습을 정확히 전수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커피브레이크(coffee break)는 지난 1970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소그룹 중심

의 귀납적 성경공부다. CRC(미국 개혁장로교회)에서 시작돼, 현재 전 세계 55개 교단에서 커피브레이크 프로그램 시행 중이며, 소그룹 사역자들에게 효과적인 성경공부 인도를 위한 성경발견학습법을 습득시켜 불신자 전도와 양육을 돕게 된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라는 문구로 널리 알려진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 정해진 룰도, 순서도, 틀에 박힌 정답도 없다.

성경 본문과 참여자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커피브레이크의 장점은 다른 곳에도 숨어있다. 바로 성경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보려는 시도다.

성경공부 인도자는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 배경 등 간단한 설명을 하지만 그것만 추가 되지는 않는다. 참여자들은 성경을 한 구절씩 읽으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내 주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이를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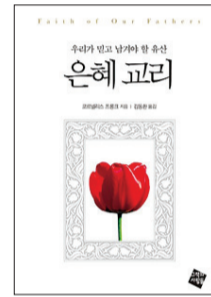
백은실 대표는 “작지만 이 소그룹 성경공부가 한인 교회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헌신된 평신도들이 말씀에 순종해 복음으로 주위를 변화시킬 힘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또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모쪼록 고통스런 환경을 어떻게 소망의 세계로 바꿀 수 있을지 함께 배워서 우리의 삶이 봄꽃 같이 환한 기쁨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컨퍼런스에 앞서 오는 6월 26일 컨퍼런스를 위한 사전 워크숍이 열린다. 접수는 오는 30일 마감한다.

▷전화: 윤은순 집사(949-322-8963)
▷웹사이트: coffeebreakkorea.org

정하나 기자



은혜 교리
코르넬리스 프롱크 | 김동환 역
그책의사람들



큐티시집 얼굴
이미선 시, 글 | 런던대 Royal Holloway College EACF · 쿨란

신자인 불신자인 많은 사람이 “하남님께서 왜 어떤 이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이들은 구원하지 않는 걸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일까?” “구원받은 데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할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 책은 이런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며,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간단명료하게 잘 설명해 놓았다. 개인이나 소그룹으로 구원론을 공부하기에 좋은 책.

시를 통해 말씀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큐티집이자 전도용 책이다. 시 뿐 아니라 사진, 해설, 말씀, 기도, 적용 등의 순서를 거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창조주와 구속주를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영국 풍경 사진을 담고 있고 초신자도 혼자서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전도용으로 선물하기에도 좋다.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심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피드몬트 대학교 학생모집

피드몬트 대학교는 [갑과을 그리고 병의 관계]를 대등하게 하여서 서로 협력하고 협력하여서 세상을 바꾸어 더 나은 세상[Better World]을 만드는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피드몬트 대학교는 정규 종합대학교로서 학문은 통전, 통합, 통섭의 융합학문[Consilience: A 'jumping together' of knowledge]을 추구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총장 Dr. William Stinde, Ph.D.
이사장 Dr. Michelle Kang, Ph.D.

PU 학과별 학사, 석사, 박사 학생 모집(00명)	
PU 한의과대학	PU신학 대학
PU 보육대학	PU음악 대학
PU 선교대학	PU ESL
PU 교육대학	PU ACL

Piedmont University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대표전화 1.323.777.5269
www.piedmontuniversity.ac

메시아닉쥬 루카스 목사 “한국과 이스라엘은 쌍둥이 나라”

‘이스라엘 미션과 중동정세 컨퍼런스’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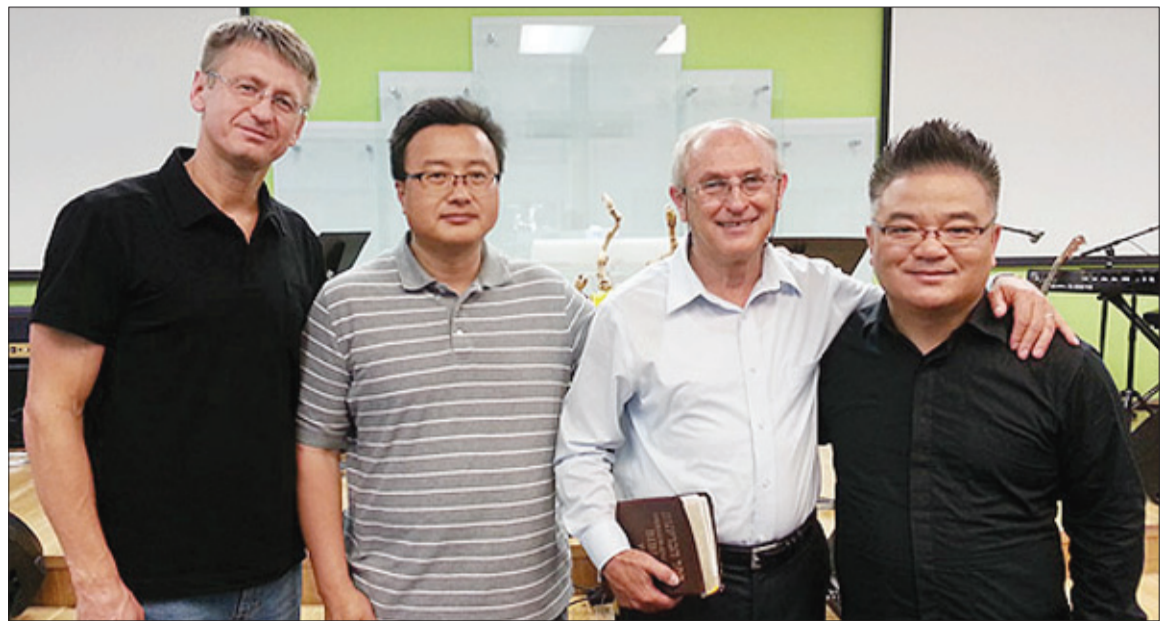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고찰해보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 미션과 중동정세 컨퍼런스’가 31일(금)부터 6월 2일(일)까지 작은자교회(UBM)(앤드류 김 목사)에서 개최됐다.

1일 오후에 강의를 펼친 메시아니 유대인연합회 회장인 하난 루카스 목사(하이파베데스다교회)는 “대체신학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것으로, 이는 소설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명을 주셨는데 사단으로서 유대인을 없애야지 성립이 되는 것이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한다. 이것은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인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아파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핵폭탄을 만드는 것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도 이란과 동일한 스피릿으로 한

국을 죽이려고 한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쌍둥이 나라라 할 수 있다. 역사적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며 “히틀러 나치가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했다. 그렇지만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륜이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항상 남은 자가 있었다. 항상 유대인들 마음에는 언젠가는 유대 땅에 가리라는 마음이 있었다.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살인의 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략을 이루시고 사단의 계획을 파괴하실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하난 루카스 목사 외에 쥘벤투스 페트롤리스 목사(케릴라트 하마안 교회, 국가복음협의회 위원), 윌리엄 브조라커 박사(윌리엄케리대학 교수, 미 하나님의성회 유대인선교사, 메시아니 공동체 설립, 에스겔 오퍼레이션 단체 디렉터)가 강사로 참여했으며, 아이리트 아이퍼트 찬양사역자(유발 예술학교 코디네이터, 메시아니 워십리더), 아엘 칼리셔 찬양사역자(메시아니 가수, 워십리더, 메시아니 유발 예술학교 엔지니어) 등이 참여했다.



(왼쪽부터) 쥘벤투스 페트롤리스 목사, 김홍근 선교사(이스라엘), 하난 루카스 목사, 앤드류 김 목사.

컨퍼런스에서는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OC교회) 임원들이 참여해 축사를 전하고, 2일 마지막날 OC교회 회장 민경엽 목사가 시무하는 나침반교회에서 집회를 여는 등 교협에서도 많은 참여가 이뤄졌다.

앤드류 김 목사는 “대체주의 신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많은 한인 교회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메시아니 유대인과 남가주의 기독교인들 간에 협력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8월 13일(화)부터 16일(금)까지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살롬! 예루살렘 브루클린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다. 뉴욕 브루클린은 유대인들이 90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로 알려졌다. 이 행사는 Korean Christian for Shalom Israel이 주최하며 KIBI 아메리카가 후원한다. 주강사로는 짐심발라 목사(브루클린 터너교회), 요셉 솔람 목사(네티비아 연구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가 강사로 참여한다. 행사에서는 예배, 강의, 거리찬양, 유대인 초청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토마스 맹 기자

애플, 동성애·음란·마약 치유 위한 앱 삭제

맨해튼 선언 이어 두번째... 성소수자에 위험 이유
“회사의 개발자 가이드라인 침해했다” 밝혀

애플은 최근 아이튠즈 매장에서 ‘Setting Captives Free’가 제작한 모바일 앱을 삭제했다. ‘Setting Captives Free’는 초교과 사역으로서 사용자들이 음란, 약물 남용, 자학, 도박 등 ‘습관적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앱을 삭제한 이유는 ‘Setting Captives Free’에서 제공하는 과정 중 ‘희망의 문’에 대한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희망의 문’ 과정은 사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동성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과정 설명에는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서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희망의 문’을 통해 음란과 자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애플 매장은 ‘AllOut’이라는 그룹이 65,000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을 돌린 이후, 이 모바일 앱을 삭제했다. 그들은 “이 앱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에게 극도로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들이 누구인지, 누구를 사랑하는지는 강요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맥월드에서 “Setting Cap-

tives Free’ 앱이 회사의 개발자 가이드라인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애플의 개발자 가이드라인은 인종 혹은 종족, 종교, 장애, 성별, 나이, 경력도, 성적 정체성을 기준으로 어떠한 단체를 향한 적대감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애플은 이 앱을 삭제조치했으나,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여전히 구글 매장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애플이 동성애 관련 앱을 삭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12월 애플은 ‘맨해튼 선언’ 앱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비판한 것으로 간주해 이를 삭제한 바 있다.

맨해튼 선언은 지난 2009년 미국의 지도자들 100명 이상이 낙태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며 발표한 성명서로, 당시 앱 스토어에서 4+ 등급이었다. 4+ 등급은 애플이 반대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애플은 온라인 청원 사이트를 통해 CEO인 스티브 잡스 앞으로 7,700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이 들어오자 이를 삭제했다.

당시 애플은 “이 앱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줬기 때문에 개발자 가이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삭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강해진 기자

“동성결혼 대세론은 거짓”... 일리노이에서 법안 부결

표결 성립에 필요한 지지조차 얻지 못해

최근 미국 일리노이 주 하원에서 동성결혼법이 부결되면서, 소위 정치권에서 일던 ‘동성결혼 합법화 쓰나미’가 한풀 꺾였다.

이전까지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5월 한 달 동안에만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미네소타 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일리노이 주 역시 2년 전 동성 커플을 위한 시민결합제도가 합법화되고, 2013년 2월 밸런타인데이에 상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34대 21로 통과시키면서 차기 동성결혼 합법화 주로 낙점된 상태였기에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일리노이 주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오바마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리노이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직접 공식 지지소견서를 발표했으나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일리노이 주에서 이 법안은 표결까지 가지도 못하는 망신을 당했다. 이유는 표결에 올라갈 만한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그렉 해리스 의원은 “최선을 다했으나 표결 성립에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한 단체(Civil Rights Agenda)의 관계자도 “안타깝게도 유색 인종들의 지지와 시카고 북부 교

외 지역 백인 부유층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합법화를 반대해 온 단체(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는 흑인목회자연합(African American Clergy Coalition)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이 단체는 “동성결혼은 대세라는 거짓말의 싹을 잘라냈다”고 자평했다. 드로이드 사용자는 여전히 구글 매장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애플이 동성애 관련 앱을 삭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12월 애플은 ‘맨해튼 선언’ 앱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비판한 것으로 간

주해 이를 삭제한 바 있다.

맨해튼 선언은 지난 2009년 미국의 지도자들 100명 이상이 낙태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며 발표한 성명서로, 당시 앱 스토어에서 4+ 등급이었다. 4+ 등급은 애플이 반대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애플은 온라인 청원 사이트를 통해 CEO인 스티브 잡스 앞으로 7,700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이 들어오자 이를 삭제했다.

당시 애플은 “이 앱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줬기 때문에 개발자 가이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삭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김영신 기자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세탁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 (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미주장신대 제33회 졸업식



미주장신대가 지난 1일 제33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제33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1일 오전 10시 남가주동신교회에서 열렸다. 학사 7명, 교역학 석사 19명이 학위를 받았다. 1부 감사예배에 이어 2부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보고 이승현 박사(교무처장), 학위증서수여 이상명 박사(총장), 격려사

이상명 박사, 기념품 증정, 광고,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꾼'(딤후 2:15) 제목으로 설교를 한 박희민 목사는 졸업생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을 독려했다.

미주개혁대 제22회 졸업식



미주개혁대학교 제22회 졸업식을 마친 뒤 교수진 및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미주개혁대학교가 제 22회 졸업식을 18일 오전 11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었다. 졸업예배는 사회 크리스 윤 학장, 기도 조성교수, 성경봉독 서은주 박사(캐나다분교 학장), 설교 다니엘 뉴먼 교수(아주사대학교) 순으로 열렸으며, 학위수여식은 사회 김운덕 교수, 학

사보고 주현상 교수, 학위수여 크리스 윤 학장, 축사 이희갑 박사, 제인 박 이사장, 답사,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대학부와 대학원에서 15명의 졸업생이 나왔다. 현재 미주개혁대에서는 8명의 교수들이 활동하고 있다.

코헨신학대 제25회 졸업식



코헨신학대학교 제25회 졸업식이 지난 31일 거행됐다.

코헨신학대학교 제25회 졸업식이 31일 본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전 세계 33개국에서 모인 가운데, 학사 125명, 석사 73명, 박사 48명, 명예 박사 9명, 총 256명이 학위수여를 받았다. 코헨신학대학교 법인총장인 로날드 벤더메이 박사의 사회로 코헨신학대학교의 국제총장인 게리

코헨 박사의 졸업연설, 미셸 강 이사장, 게리 코헨 박사의 장학금 수여식, 베버리힐스 시장인 짐 텔사드 박사의 축사, APU 총장인 알렉스 파르시니아 박사의 축사, 피드몬트대학교 총장인 윌리엄 스티븐슨 박사의 축사, 예장 중앙총회 총회장 백기환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월드미션대 제22회 졸업식



월드미션대학교 제22회 학위수여식이 지난 1일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렸다.

월드미션대학교 제22회 학위수여식이 1일 오후 1시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렸다. 학사 15명, M. Div. 25명, 음악 석사 3명 등 총 43명이 졸업했다. 송정명 총장은 설교에서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한다. 꿈을 가진 사람은 역경 가운데 견디며 인내할 수 있다. 내게도 우리 학교가 꿈꾸

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서부의 명문대학이 될 것이라는 꿈이 있다"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소감을 전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1989년 3월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영적훈련과 학문 사이에 균형을 이룬 지도자의 육성을 비전으로 설립됐다.

국제개혁대 제34회 졸업식



국제개혁대 제34회 졸업식이 지난 25일 나성열린문교회에서 열렸다.

제 34회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이 25일 나성열린문교회에서 열렸다. 기독교 문학사 15명, 기독교학 석사 2명, 목회학 석사 14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3명이 유아교육교사 및 원장 자격을 얻었다. '포기하지 않는 엘리사란' 제목으로 설교한 안명환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부총회장)는 "고난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기 바란다. 엘리사와 같이 끈기 있는 믿음을 갖고 살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총장 박헌성 목사는 "섬김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히 전하겠다는 각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개혁대는 지난달 중순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ABHE 66차 연차총회에서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design@christianherald.com <design@christianherald.com>;

THE REFORMED UNIVERSITY

미주개혁대학교 1990년에 고 박요한 박사가 설립한 미주개혁대학교는 철저한 신학 학문 바탕으로 영성훈련, 교회헌법, 예식, 목회실습 등 전통성과 전문성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윌리엄캐리대학 코리안 Ph.D 과정 >>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Korean Ph.D)

윌리엄캐리대학의 박사학위과정 (Ph.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을 미주개혁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전공분야: 1. 선교 2. 기독교 교육 3. 글로벌 리더십

특징: 윌리엄캐리대학의 졸업장을 받는다
한국 지도교수에게 한국어로 공부하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세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멘토링과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다
윌리엄캐리대학의 도서관과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복수학위 수여 (Ph.D) >>

윌리엄캐리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에 미주개혁대학의 D. Min, D. Miss, Ph.D in Theology(24-30학점)를 추가로 이수할 경우 두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미주개혁대학은 다양한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및 편리한 통신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학사, 석사, 박사) >>

Undergraduate 대학부
Bachelo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Graduate 대학원
Maste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Master of Divinity

Graduate 박사원
Doctor of Ministry
Doctor of Philosophy in Theology

세부전공:
신학 Theology,
기독교 교육학 Christian Education,
유아교육학 Early Childhood Education,
목회상담학 Pastoral Counseling,
심리학 Psychology, 선교학 Missiology,
세계문화학 Intercultural Studies,
문예창작학 Classical Literature

2013 여름학기 속성클래스 Intensive Program으로 등록 >>

1주일 집중 교육함으로 한 학기를 수료
일시: 2013년 7월 22일(월) - 26일(금)
장소: 미주개혁대학교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수업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SEVIS I-20 발행

-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 Office **213-736-6500** | Fax 213-736-6504
-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기독교일보 6/6/2013 4면 MCYK

효부 룯의 영적 소망과 은혜 보장

룯기 1:16-2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룯의 영적 소망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헬 지역에 에브라다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혈통이고 베들레헬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나오미라는 아내와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 식구가 꽤 부자로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복을 누리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이 곧고 강퍽하고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능멸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그 땅에 흉년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자연 그대로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작물이 전혀 추수할 것이 없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고를 먼저 겪어야 하는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9-21절에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쫓고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밟고 같게 하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질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고 하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하고 무례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고통 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 겸손히 무릎 꿇어 회개하면 다시 그들은 은혜 조건으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이 사사시대부터 반복적으로 계속돼 왔습니다.

베들레헬에 흉년이 계속되는 것은 그 백성들의 교만과 죄값으로 징벌을 받는 과정이었는데 나오미의 가족은 그것을 피하여 멀리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중 진노를 받게 했던 불신앙적 배은망덕이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행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압 땅은 사해 동편의 넓은 평원이 펼쳐진 곳으로 목축이 성행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호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인 남편을 치셨고 엘리멜렉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빠른 깨달음으로 아들 둘을 데리고 서둘러 하나님의 딱집, 생명이 공급되는 베들레헬으로 돌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곳 저주받은 혈통인 모압의 딸들과 아들을 결혼시키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안의 두 아들마저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만 대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대만큼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분수에 넘치는 은혜로 대접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거나 대적하거나 거역,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 주시다가 끝내 돌이킬 가망이 없어 보이면 할 수 없이 없애 버리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고 과부 세 사람, 나오미와 모압여자 큰며느리 오르바와 룯이 남았습

니다. 나오미는 가슴에 남편과 두 아들을 묻어 아하는 불행한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헬에 회개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벌로 내리셨던 흉년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풍년의 결실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베들레헬은 딱집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딱집을 떠난 것은 생명의 양식 공급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뿌리친 것이 되고 배은망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이 객사하는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론 네 식구가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매질하시는 베들레헬을 떠나서 죄악 세상인 모압 땅으로 가서 잘살아 보자고 했던,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베들레헬에 남아서 하나님의 매를 맞아가면서도 애절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던 그 백성들의 흉년의 고통을 겪었던 것보다 나오미는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헬이 회복되어서 풍년이 들었다는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로소 나오미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내가 거기에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매를 밟고 그들과 함께 고생을 겪더라도 그곳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쩌자고 남편이 하자는대로 따라와서 이 저주받은 땅에 와 남편과 두 아들을 객지에 묻어야 했는가...”며 이제 베들레헬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정리하고 출발을 합니다.

나오미는 젊은 자부 둘을 함께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들을 타이릅니다. “내 딸들이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룯1:11)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청을 큰며느리 오르바는 받아들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룯은 1:16-17에서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입니다.

이러한 룯의 신앙고백은 육신이 다 늙은 시어머니 그것도 남편과 두 아들을 객지에 묻어 두고 여자로서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보잘 것 없는 늙은이에게 세상 조건으로 무슨 기대 걸 것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부당스러운 일 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일해서 봉양해야 하고 대접하고 음식뿐 아니라 옷도 신발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룯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룯은 그 집에 시집을 오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왜 가장이 객사하고 두 아들마저 객지에 묻어야 했는가 하는 것은 그 시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고 능멸하고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룯은 분명한 영적소망을 목적으로 다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헬에 보리 추수할 즈음인 4월쯤 들어가게 됩니다. 보리 추수 중에는 남자들은 전부 다 들에 가서 움막을 치고 계속 밀보리를 베면서 먹고 자고 합니다. 성 안에는 여자와 아이들 밖에 없습니다. 성문에 해질 녘에 들어오는 나오미를 보며 사람들은 “나오미가 아니냐?”며 묻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희락’입니다. 옛날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 가운데 살 때는 기쁘고 즐거웠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남편의 잘못된 인도를 따라 멀리 저주받은 모압에 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은 나오미의 신세를 쓰디쓴 주인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은 나오미라는 이름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는 나오미가 깊이 참회하는 태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보장

객지에서 들어온 이 룯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선민사상이 있어서 특히 이방인들 중에도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룯의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생겨난 큰 딸의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딸의 아들이 암몬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주 받은 백성, 하나님 앞에 너무나 비천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룯이 베들레헬에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온 것은 자기의 출신성분과 가정이 아무리 비

참했다 할지라도 저주의 피를 이어받은 불행한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영적 소망의 믿어지는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영적 소망 하나를 목적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멸시와 천대, 구박을 각오하고 왔던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룯은 그 시어머니를 위하여 광주리를 들고 자기를 멸시하는 유대인들의 틈 속에서 밥늦게 어두워서 보리이삭을 주울 수 없을 때까지 줌고 그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이러한 룯의 행동이 시어머니를 위한 행동으로 보여졌지만 그 중심은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인정받고 구원받고 싶은 영적 소망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소망에 대하여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를 살펴 진실된 마음으로 룯과 같은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룯의 이러한 효성은 온 성 안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룯의 행적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헬 성주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룯은 보아스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룯기 4장17-18절에 “그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 했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왕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표로 소개되어져 왔습니다. 마태복음1장5절에 보면 이 룯이라고 하는 모압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 소망의 믿어지는 믿음의 희생과 수고,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구원얻기 위한 영적 소망을 기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 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후 2시 30분	미국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 11시 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담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루한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PACS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성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화 목사 총장: 김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 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P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IT 칼럼

무엇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가?

요즘 한국에선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다. 발전소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비에 포함된 케이블이 불량이라는 것인데, 민간업자가 시험 데이터를 위조·변조해 납품한 케이블을 지금껏 여러 발전소에서 사용해오다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 이 발전소들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는 것이다. 실생활의 편리함을 가능케 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유용성도 좋지만, 언제 닥칠 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재앙에 대비하지는 차원에서다. 올해 유난히 길고 무더운 여름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수급난은 물론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앙을 방불케하는 사태의 원인은 몇몇 업자들의 이기심에 있다.

컴퓨터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처음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것은 아니었다. 여기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한몫 했을 터다. 세상 만사가 그렇듯 새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찬 극히 소수의 사람들의 노력 덕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새 것을 접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급기야 모든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컴퓨터 상용화 프로세스 역시 그러했다.

문제는 소수의 사람들 중 일부가 약한 용도로 쓰고자 만드는 데 있다. 가령 한 사람이 악성바이러스를 만들어 유포시킨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막대할 뿐 아니라 사태 해결에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컴퓨터 자체를 못쓰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니, 여기서 달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싱가포르에 가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껌에 관한 이야기다. 껌을 씹는 행위 자체가 벌금을 물어야 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문화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에게 다소 불편하게 다가올 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지인들에게 이미 국민적 함의에 의해 도출된 일종의 약속과도 같은 것으로, 전혀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자동차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없앨 수 없듯 컴퓨터도 마찬가지다. 나쁜 용도로 쓰인다고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컴퓨터 사용과 관련해 더욱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교회 내에 대부분의 세상 문화에 대해 암묵적으로 비기독교 문화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딱 꼬집어서 어떠한 문화가 기독교적인 문화인지에 대

한 설명이나 해석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막상 크리스천들은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도 아닌 척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많은 교회가 “하지 말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하라”는 말은 별로 없는 듯 하다. 교인들을 상대로 “이 영화는 꼭 챙겨 보라”고 하거나, 아무개 목사님의 강의를 찾아서 들으라는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최첨단 시대를 살면서 인터넷 상의 어떤 성경공부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꼭 보라는 안내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기본적인 컴퓨터 및 스마트폰의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비단 일상생활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영성 면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가 하는 일이 이런 류의 일이다. 어떤 모임이던 시간만 맞으면 달려가 크리스천들이 컴퓨터를,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이다. 물론 강사료는 없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도 없다. 단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기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중이다.

/윤승준 집사(sjyoon7231@gmail.com)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 대회

장애투 사랑교회에서 1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찬송 잔치를 엮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 봉사, 마음, 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06 S. Bonnie Brae St., L.A., CA90057	그랜드 파크 양로병원 Grand Park Convalescent Hospital 2312 W. 8th St. Los Angeles, CA, 90057
---	--

1차 찬양대회: 2013년 6월15일 토요일 오전10시 2차 찬양대회: 2013년 12월21일 토요일 오전10시	부활절 예배: 2013년3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추수감사절예배: 2013년11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성탄절 예배: 2013년12월20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	---

■ ■ ■ 봉사자들을 구합니다 ■ ■ ■

협찬 남가주 교회협의회, 남가주 한인 문화, 일에서 사랑교회, 믿음의 우산을 전하는 신요교회, 메이넷 맥 변회사 그룹, 믿음의 변호사 그룹, 가주 영모회, Lahenco, Inc. 해외리 자영사, 남가주 총회도도연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투 사랑교회 T. 213-705-0404 F. 213-251-8930 P.O.Box 742017 LA., CA9000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골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미국 한국여자선수들 대회마다 상위랭크, 양용은 동양인 최초 메이저 대회 우승, 최경주 미PGA서 꾸준한 성적. 귀하의 자녀도 이런 선수를 이상의 골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단 자녀의 잠재력을 보시고 골프를 가르쳐 보십시오. 우리나라 탑프로 95% 이상이 부모의 골프조기 교육 및 반 강제성의 권유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타이거우즈 역시 만 5세부터 부모에 의해서 골프를 시작해 지금에 왔습니다.

골프를 하면 어린이 성장발육, 성격교정, 근력향상,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 : 7~11세 (K-TOWN 픽업가능)
- 모집인원 : 선착순 한정 모집
- 수업방법 : 주 2~3일

문의 : 310-598-0746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A Memory 추억

William Allingham

Four ducks on a pond,
연못에 네 마리의 오리들
A grass bank beyond,
저 멀리 풀 덮힌 들판
A blue sky of spring,
봄의 파란 하늘
White clouds on the wing:
날개 돌친 하얀 구름들:
What a little thing
얼마나 귀여운 것인가
To remember for years
수년 동안을 그리워하다니
To remember with tears!
눈물을 흘리며 회상하다니!

시인 윌리엄 앨링엄(William Allingham)은 1824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1889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처음에 은행원이었으며 이후 세관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다 1870년경 《Fraser's Magazine》이라는 잡지에 들어가 글을 쓰기 시작해 《Laurence Bloomfield in Ireland》라는 장편 시를 써서 시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시작했다. 특히 시 《Day and Night Songs》는 훌륭한 시인으로서의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한 작품이 됐다.

이보다 더 유명한 저서에는 《The Faeries》와 《Diaries》가 있다. 《Diaries》 속에는 알프레드 테니스(Alfred Tennyson)과 토마스 칼라

일(Thomas Carlyle) 같은 작가들에 대해 묘사돼 있기도 하다. 그의 부인 헬렌 앨링엄은 수채화로 유명한 화가였다.

윌리엄 앨링엄은 65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내와의 관계로 화가들과 친구가 두터웠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 시 속에 색채감을 삽입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청색, 백색, 그리고 녹색을 넣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린 것 같은 신선한 느낌을 준다.

〈시 감상〉

시 《A Memory》는 한 폭의 아름다운 추상화다. 자연의 움직임 가운데 생명체 곧 네 마리 오리는 그들의 세상인 연못 위에서 안정과 우애와 평화를 즐기고 있다. 시인은 작품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물체의 사랑과 색채감을 더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듯 하다.

연못은 오리 세상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리가 네 마리뿐일까? 더 많았으면 좋았을 법도 한데... 여기서, 네 마리란 숫자는 여유있는 안정된 삶을 의미한다. 세상은 동서남북 네 모퉁이가 있어 안정감을 준다. 자동차 바퀴도 네 개가 있어야 안전하다. 책상 다리도 의자 다리도 네 개로 돼있어 안정을 이루

듯 말이다.

네 마리 오리는 쌍쌍임에 틀림이 없다. 우정 넘치는 사랑의 교제임을 말해준다. 저 멀리 보이는 풀 덮힌 들판은 방파제다. 파도를 막아 주고 바람을 막아준다. 시인은 색채를 넣어 봄을 노래함으로써 생동감과 아름다움을 더한다. 봄의 파란 하늘, 흰 구름, 초록색의 푸른 미의 조화인 것이다. 특히 흰 구름은 먹구름과는 완전히 다르다. 먹구름은 음울함을 나타내지만 흰 구름은 파란 하늘을 더욱 화려하게 대조적으로 비추어준다.

이렇듯 한 폭의 그림 같은 시는 시인 자신의 시상을 독자에게 던져 줘 세상은 인간의 호수이며 네 마리 오리는 다양한 부부 같은 인상을 준다. 수년 동안이고 아니, 슬픔에 잠겨있을 때일지라도 그리워하며 추억하며 회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라 하겠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평화로운 호수에서 안정된 삶을 즐기는 네 마리 오리의 모습처럼 안정된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을까?



배효식 교수
아메리칸침례대학

Three-Level English Education <3단계 영어교육>

English (초급 영어)

▷John: Do you listen to the radio everyday? (당신은 매일 라디오를 들습니까?)

▷Maria: Yes, I do, but not everyday. (네, 들습니다. 그러나 매일 듣지는 않습니다.)

▷John: Do you work? (당신은 일을 하십니까?)

▷Maria: No, I don't. I am a student. (아니요. 일하지 않습니다. 전 학생입니다.)

▷John: Do you ride the bus to school? (당신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나요?)

▷Maria: Yes, I take the bus to school. (네, 전 학교 갈 때 버스를 탑니다.)

▷John: What do you do at home after school? (방과 후에는 집에서 뭘 하시나요?)

▷Maria: I do my homework. (숙제를 합니다.)

▷John: I must go. Have a good

day. (저는 가봐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Maria: You, too. See you again. (당신도요. 또 뵙겠습니다.)

English (중급 영어)

The word was the source of life and this life brought light to people.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never put it out. God sent his messenger, a man named John.

그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고 어둠은 그 빛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이라 하는 사람을 사역자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6>

English (고급 영어)

Learn to value yourself, which means: to fight for your happiness. The purpose of morality is

to to teach you, not to suffer and die, but to enjoy yourself and live. There are two sides to every issue: One side is right and the other is wrong, but the middle is always evil.

여러분의 가치관을 배우세요.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투쟁하라는 뜻입니다. 도덕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어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즐겁게 살라는 데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양면이 있습니다. 한 쪽은 옳은 것이며 다른 쪽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은 항상 악한 것입니다. <여류 작가 아인 랜드(Ayn Rand)의 어록 중에서>

▶주: 작가 아인 랜드는 로서아 피터스 버그에서 1905년 2월 2일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을 좋아했으며, 글쓰기를 즐겼다. 페트로그라드대학에서 철학과 역사를 공부했으며, 21세 때 도미해 영화의 도시 할리우드에서 영화 소설 《The King of Kings》를 비롯한 많은 작품을 남겼다.



방광염?
요실금?

“이제 멀리 외출해도 자신있어요”

www.sejongbiotech.us



제품박스에 한국식약청의 인증마크와 효능이 표기되지 않은 것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항상 찝찝하고 잔뇨감으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크게 웃거나 조금만 방심해도 소변이 흐르는 통에 마음은 우울했습니다. 멀리 여행은 커녕,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화장실부터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크렌베리 중에 100배 이상 농축된 파크렌 크렌베리가 농축되고 식약청이 요로건강에 대한 기능성을 공인한 제품이니깐 너무 좋습니다. 오줌소태, 방광염, 요실금으로 힘드세요?

세종 **요로정보감** 으로 잡으세요.

오줌소태, 요실금, 전립선건강, 방광, 요로건강 개선

세종 요로정보감



“오줌소태, 요실금 방광염, 전립선이상에~”

주요성분 및 효능

파크렌 크렌베리, 호박액기스, 콜라겐, 마그네슘, 철분, 엽산, 건조효모 등
크렌베리중의 크렌베리 “파크렌 크렌베리”



미국 DBS(데카스보테니컬시너지)의 다국적연구 프로젝트과정 중 기존의 크렌베리보다 수십배의 효능을 가진 파크렌크렌베리를 개발. (미국, 영국 등 특허)

KFDA 공인내용

요로의 유해균 흡착억제로 요로건강에 도움

세종요로정보감(파크렌 크렌베리) 인체시험결과



요통, 빈뇨, 하복부 통증 호소자 60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실시 - 효능 입증
- 미국 크레이튼 대학의 임상으로 증명된 파크렌 크렌베리 효능 입증
참고: (영어) www.pacran.com
(한글) www.pacran.co.kr

세종요로정보감은 이런분이 드시면 좋습니다.



- 요로감염, 빈뇨, 오줌소태, 전립선장애, 방광염
- 요로감염으로 요통을 호소하는자
- 하루 소변을 8번 이상 보는 분이나 빈뇨증
- 오줌소태나 방광염으로 걱정하시는 분
- 소변의 악취나 배뇨시 불편함을 느끼는 분
- 전립선의 장애로 힘들어 하시는 분
- 신장, 요로, 방광, 전립선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시고 싶은 분

포르테
세종 송보감

“춤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고려대학교 발효홍삼 **고려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홍삼”

“내가 바로 홈스쿨링의 수혜자” 크리스천 롤모델 5인



(왼쪽부터) 팀 티보, 베다니 해밀턴, 릴라 로즈, 지안나 제슨, 아키아나 크라마릭

“내 아이는 내가 가르친다.”
 갈수록 공교육에 대한 실망감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대안교육으로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교육 시스템을 탈피해 부모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부담감 혹은 실패 가능성 때문에 용기를 내기 쉽지 않다. 게다가 아직 도입 초기단계이기에 홈스쿨링의 성공적인 사례도 그다지 많지 않아 그 효용성 여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몇몇 유명 크리스천들 가운데 실은 홈스쿨링의 수혜자인 경우가 적지 않아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들은 학교라는 정해진 틀이 아닌, 세상이라는 배움의 터전 속에서 스스로 꿈과 목표를 세워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여기, 홈스쿨링으로 세상에 도전장을 내민 5명의 크리스천들을 만나보자.

■ 팀 티보

팀 티보(Tim Tebow·25)는 2007년 홈스쿨링 출신으로 처음으로 미국대학미식축구 최우수선수상인 하이즈만 트로피를 차지했다. 수차례나 팀의 역전승을 이끌며 ‘기적의 사나이’란 별명이 붙었다. 2010년 덴버에 입단하면서 프로미식축구리그(NFL) 무대에 데뷔했다. 필리핀 선교사 부모의 영향으로 독실한 신앙심을 가진 티보

는 경기 도중에도 수시로 한쪽 무릎을 꿇는 독특한 기도 자세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티보가 기도하는 자세는 이른바 ‘티보잉(Tebowing)’이란 신조어까지 등장케 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부활절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성경구절을 나누며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얻게 됐으며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316”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 베다니 해밀턴

프로서퍼가 꿈이었던 소녀, 베다니 해밀턴(Bethany Hamilton). 그녀는 13살이었던 2003년 하와이 바다에서 서핑을 하던 중 타이거 상어에 물려 한쪽 팔을 잃었다.

그의 부모는 당시의 끔찍했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굉장히 끔찍했어요. 병원에 왔을 때 아직 살아있다는 것 말고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정말 몰랐어요. 아이를 직접 보고 나서야 비로소 한쪽 팔이 없어졌다는 걸 알았죠. 가장 큰 걱정은 서핑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어요. 딸 아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였죠.” 하지만 서퍼로서는 최악의 비극을 겪으면서도 베다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기도를 통해 결국 다시 서핑을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23살이 된 베다니는 그의 소원대로 세계적인, 촉망받는 여자 프로서핑 선수가 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되기에 이르렀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우린 불완전함을 통해 아름다움과 삶을 조율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서 “또한 불완전함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고 베다니는 당당하게 말한다.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절대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녀의 삶은 믿는 이들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녀 역시 홈스쿨링의 수혜자다.

■ 릴라 로즈

남가주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낙태반대운동가 릴라 로즈(Lila Rose). 그는 홈스쿨링 교육을 받고 있던, 그의 나이 15살 때 집안 거실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NGO그룹인 ‘살아있는 행동(Live Action)’을 창설했다. 올해 나이 24세. 로즈는 홈스쿨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홈스쿨링을 통해 진리와 선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배웁니다. 또한 내 꿈과 열정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 지안나 제슨

지안나 제슨(Gianna Jessen)의 낙태 반대운동은 그의 나이 14살 때 우연히 생모의 낙태 수술이 실패해 뇌성마비를 얻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지안나 제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옥도버 베이비’가 지난해 출시되기도 했다. 낙태반대운동가로서의 그의 활약은 2002년 조지 W.부시 대통령이 ‘낙태수술시 살아 나오는 아기를 보호하는 법안(Born Alive Infants Protection Act.)’에 서명하면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현재 가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제슨은, 영화 ‘옥도버 베이비’ 사운드 트랙 중 한 곡을 맡아 부르기도 했다.

■ 아키아나 크라마릭

1994년 일리노이 태생의 시인이자 천재 화가 소녀 아키아나 크라마릭(Akiane Kramarik). 올해 18살인 크라마릭은 3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6살 때 유화를 그렸고, 7살 때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정식으로 그림을 배운 적이 없지만, 오로지 홈스쿨링과 독학으로 성인 화가 못지않은 ‘멋진’ 그림을 그려내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크라마릭이 그린 그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영감과 용기를 불러 일으키는 묘한 매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분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충실하게 재현해낸다. 크라마릭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들려온다”고 말한다. 최근엔 피아노를 독학으로 치기 시작했으며, 스스로 작곡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크라마릭의 그림은 웹사이트(www.artakiane.com/home.htm)에서 감상할 수 있다.

위의 5명의 크리스천 롤모델뿐 아니라, 최근 한국에서도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2’에서 우승을 거머쥔 악동뮤지션(이하 악뮤)이 몽골에서 홈스쿨링을 받았다고 해 화제를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악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홈스쿨링의 장점에 대해 “스스로 시간표를 짜고 자유시간에 노래를 하다 미처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의 5명의 크리스천 롤모델뿐 아니라, 최근 한국에서도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2’에서 우승을 거머쥔 악동뮤지션(이하 악뮤)이 몽골에서 홈스쿨링을 받았다고 해 화제를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악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홈스쿨링의 장점에 대해 “스스로 시간표를 짜고 자유시간에 노래를 하다 미처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알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최근 한국에서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2’에서 우승한 악동뮤지션.

한국기독교홈스쿨협회에 따르면, 협회 등록회원만 530여 가정이 넘고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자칫 낙태해지기 쉬운 것이 홈스쿨링의 단점으로 꼽힌다. 또한 자신에게 꼭 맞는 커리큘럼을 찾기까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부모가 자

녀들의 학업과 일상생활을 직접 도와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홈스쿨링”이라고 전제하면서 “부모가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고 조언한다.

정하나 기자

마커스 10주년 감사 앨범 출시 원곡과 다른 스타일로 편곡

“지난 사역의 흔적과 하나님의 은혜 담아”



마커스 10주년 감사앨범

2013년은 마커스에게 특별한 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창립 예배를 드린 지 1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에 마커스 지난 10년의 흔적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흔적을 담아, <MARKERS 10th Anniversary-마커스 10주년 감사앨범>을 출시했다.

마커스는 단순히 유명한 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잘 담긴 곡들로 이 앨범을 만들었다. 그렇게 총 21곡이 담겼다. 10주년을 기념하여 발매된 만큼 2CD에 스토리를 더한 풍성한 패키지로 구성됐다.

음악적인 특징은 21곡에 이르는 마커스의 창작곡들이 원곡과는 다른 장

르와 스타일로 편곡됐으며, 스튜디오 버전으로 새롭게 해석했다는 점이다. 라이브워십 앨범과 예배 현장에서 많이 부른 ‘부르신 곳에서’, ‘그가 오신 이유’,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의 사랑’, ‘감사함으로’ 등 많은 사랑을 받은 예배곡은 물론 ‘동행’, ‘달려가리’, ‘사랑에 물들어’, ‘김은별’, ‘시해해 봐’ 등 마커스에서 만들어진 CCM곡들까지 새로운 느낌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앨범 제작 과정에서 마커스 멤버들 중심으로 진행돼왔던 모습을 뛰어넘어 드러머 장형, 기타리스트 홍준호, CCM 신인밴드 ‘야로새긴’, 피리연주자 권병호 등 다양한 분야의 연주자들도 음반 제작에 참여했다.

신태진 기자

평화교회 영재학교 10주간 과정 수료

바른 신앙 정체성 세우는 게 목표



평화교회 영재교실에서 10주간의 과정을 수료한 어린이들이 시조를 암송하고 있다.

5세 아이가 어른들도 외우기 힘든 시조를 줄줄 읊조리는 일이 가능한 걸까? 그 광경을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으리라. “뜻깊은 한자 암송을 통해 구도력이 생기고 풍부한 상상력과 집중력까지 생깁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인지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한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나 친구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중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합니다.”

“기계를 다루는 테크닉에는 능숙해져도 사고력과 창의력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현 교육 시스템의 부작용입니다.”

평화교회 담임목사이자 평화교회 한글학교 교장인 김은목 목사의 말이다.

올해로 평화교회 한국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재교실은 지난 5월말 2돌을 맞았다. 이에 지난 31일 열린 수료식 겸 발표회에서 25명의 아이들이 10주간의 과정을 이수하고 그간 배운 내용을 발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수료식에서는 맨 먼저 ‘어머니 은혜’를 단채 합창했고 이어 5~11살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 일제히 고시조를 암송했다.

“까마귀 눈비맞아 희는듯 검노래라/ 아광명월이 밝인듯 어두우라/ 님 향한 일편 단심이 변할줄이 있으랴(박맹년)”

이어 <동 나비야 청상가자>, <남이 해할 지라도>, <잘가노라 달리지말며>, <동창이 밝았느냐>, <되는 길고 길고>, <의상대 해돋이> 등을 잇달아 암송했다.

이후 4명의 아이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펼쳐주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며 저마다 마음 속 깊은 감사와 사랑을 담아 편지를 낭독했다. 자녀들의 편지 낭독을 들은 부모들은 때론 웃기도 울기도 하면서 감

동의 장을 연출했다. 말씀을 전한 김은목 목사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 소개하면서 “압살롬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얻을 만큼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런 아들 압살롬을 아버지인 다윗도 그를 특별히 사랑했지만,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하고 죽이려하고 오호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압살롬은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탁월한 자였지만 하늘의 이치를 몰랐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기술이나 테크닉을 하나 더 가르치기보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천애인 즉,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의 핵심”이라면서 “모든 교육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희생의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자녀를 이런 사람으로 키워야 이 시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민사회의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평화교회가 주관하는 영재교실에서는 읽기를 비롯해 쓰기와 말하기, 노래하기, 시 및 시조 암송, 한자, 철학, 미술, 한글, 역사 등 과목별 학습목표를 가지고 교육하고 있다. 한자교육의 경우, 사자성어를 배움으로써 한 학기 10주간 40~80한자를 배운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로 하여금 관찰력과 구도력, 조직력을 갖추게 하고 나아가 장악력과 리더십을 갖추도록 돕는다.

매년 봄, 가을 학기로 각 10주씩 진행되며, 2013년 가을학기는 오는 9월 7일 개강한다. >문의 : (213) 388-1576

“가난한 이웃에 사랑의 빛 밝힌다”

비전케어서비스, 무료 백내장 수술 및 안검사 실시



제2회 LA사랑의 무료개안수술 캠프 행사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의료구호 단체 비전케어서비스(VCS) 미주서부(이사장 알렉스 장)가 주최한 ‘제2회 LA 사랑의 무료개안수술캠프 감사의 밤’ 행사가 지난 30일 열린 가운데, 무료 백내장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수술 받은 환우, 그리고 VCS 관계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VCS는 보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에게 인종, 종교, 국가를 초월하여 사랑의 인술을 펼치는 의료구호단체로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등 24개국에서 실명 예방과 백내장 수술 등 무료 개안수술을 펼치고 있다.

이창엽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참여 의료진과 화랑라이온스 클럽 등 도움을 준 개인과 단체에게 LA시 명예의 감사장을 전달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캠프를 통해 77명의 환우들이 무료 안검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백내장이 시급한 환우 11명이 수술을 받았다.

캠프는 마취과 서영석 의사를 비롯해 곽건준, 조성진, 한스 김, 사만다 최, 이찬주, 리사 황, 브라이언 송 등 안과의사 7명이 참여해 형편이 어려운 백내장 환우들을 위해 의술을 펼쳤다.

앞서 VCS는 지난 2월 23일 화랑라이온스 클럽과 함께 LA총영사관 주차장에서 ‘무료 안검진 캠프’를 열어 77명의 한인들에게 무료로 눈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기서 백내장 질환이 발견된 형편이 어려운 환우들

을 선발해 KART재단과 오픈뱅크의 후원으로 세인트빈센트 안과수술센터에서 수술을 진행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수술을 받은 장태향(71)씨의 딸 김운정 씨는 “신분상의 문제로 불편하진 것을 알면서도 너무 큰 금액에 가슴 아팠는데 수술을 통해 어머니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까지 밝혀져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신학을 공부하는 박용주(52)씨는 “눈 수술 후 학업에 더 집중하게 되고, 일상생활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한쪽 눈으로 보던 세상을 두 눈으로 보게 되니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희망도 가지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VCS미주서부 고문인 서영석 마취과 의사는 “많은 환자들이 실명에서 벗어나 광명을 찾기를 바란다”며 “보험이 없어 간단한 안검진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무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VCS 미주서부는 오는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과테말라에서 무료 개안수술 아이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자는 현재 마감된 상태이며, 수술소포함과 돈보 기 구입을 위한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213-281-2617(VCS WEST이전간사)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오전 6:00(토)
2부예배 오전 10:30 유초등부 오후 12:45
3부예배 오후 12:45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말-토)
저녁 오후 7:30(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 3119 Wilshire Blvd, LA, CA 90020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영어예배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말-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서건오 담임목사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재복음선교교회
은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교회

3313 W. Pico Blvd, 2F # A, LA, CA 90019
T. (213) 327-9200, T. (213) 598-9932

최은형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주일 EM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세계선교교회
하나님의교회, 사랑의교회, 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 90006
T. (213) 388-1927, 388-2105

박승부 장로 1기, 2기, 3기 수료생배출, 현재 4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약품이나 기구 없이 손안으로 각종 질병 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LA 2836 W 8th St #106 LA, CA, 90005
OC 부활교회 (아리랑 미켓 튀) T. (213) 381-7273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너지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넌렛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25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7:30(토)

임마누엘선교교회
초대교회의가정요양, 성경적요리노니, 만민대상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말-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말-금)
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신교에 흐름, 소.초.진 신사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텔레시(Callng), 고지교(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Confronting)

5005 Ender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평일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만21세부터 90세까지 이만21세부터 이만21세까지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교회의 빛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선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00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유저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마원철 담임목사
인랜드온누리교회
말씀에 뿌리내려 자라나며 열매맺는 은혜의공동체
9806 Arrow Rt., Rancho Cucamonga, CA 91730
T. (909) 945-9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찬양선배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유니버시티부 오전 11: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실현을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 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00 중/고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예배 오전 11:00

대홍장로교회
망할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의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며 문명(통)하여 만사형통함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미유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할로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세교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pk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할로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화성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힐로우쉽)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오후 12:00 (분당)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KAPC 제37회 총회 회무처리 종료 후 폐회 2세 목회자에 교단 미래상 제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37회 총회를 마치고 총대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제37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가 사흘째인 23일 LA웨스턴호텔에서 회무처리가 진행됐다.

이번 총회는 첫날 파행을 빚는 일이 있었지만, 북미주노회에서 1.5세 및 2세 목회자들 10여명이 참여해 성찬예식을 차세대 목회자가 집례하는 등 교단의 새로운 미래를 보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23일 저녁예배에서는 한국어에서 방문한 합신 총회장 이철호 목사가 ‘총성하는 종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저녁식사 후 열린 회무처리회는 오후 8시에 시작돼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진행됐다. 첫날부터 회무처리가 지연되면서 인사부에서 현역의 여러 안건을 토의하는 가운데 시간이 오랫동안 지체됐고 또 이를 결정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총대들은 이날 인사부의 보고를 기다리면서 여러 의견을 냈다. 한 총대는 “WCC총회가 오는 10월에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데, 이에 대한 총회 정체성과 여성안수,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총회가 명백한 입장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의견을 냈다.

뉴욕의 한 총대는 “총회에서 정책이 추가되고 바람직한 선교 사제 발표 등이 객이 되면 본질이 비본질화되고 비본질이 본질이 되는 실수를 겪게 된다. 총회 때마다 정책이 추가 된다면 우리 후배들이 총회에 들어올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선교를 활성화 시키는 노회와 총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발언했다.

임사부의 보고는 오후 10시가 넘어서 이뤄졌다. 임사부는 5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총회를 이끈 회원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했지만, 그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기각시켰다. 총회는 사실상 재판을 설치한 후 이타 회원들을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지역이 광대한 서북미 노회는 서북미 노회와 (가칭)밴쿠버 노회로 분립하기로 허가됐다. 남가주 노회에서 청원한 ‘KAPC 목회자 윤리 강령’ ‘2세 교육 육성안’ ‘교회를 돕는 총회’ 등은 규칙부로 보내어 1년간 연구 후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부노회에서 청원된 사적인 이메일 발송 건은 규칙부로 보내어 규제하기로 했으며, 뉴욕장로교회 7인 장로 건은 새 담임목사가 부임 이후 공동의회를 열어 신임을 묻기로 했다.

뉴욕든든한교회의 한 성도가 한 상소건은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결정됐다. 로스앤젤레스 노회가 현역의 교단발전위원회 해체 건은 부결됐다. 이날 마지막으로 15인으로 구성된 상설재판국이 신설됐다. KAPC 37회 총회는 회무가 끝난 24일(금) 새벽 3시 폐회예배를 드리고 나흘간의 일정을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엄영민 총회장 “참신한 총회 되게 할 것”

3개로 갈라진 서가주노회, 사교노회 처리돼

제37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가 21일 저녁부터 개막한 가운데, 셋째날인 23일 오전 임원 선출이 전격 이뤄졌다.

선출된 신임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엄영민 목사(남가주노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부총회장 정관일 목사(캐나다노회, 토론토가든교회), 서기 고택원 목사(필라노회, 새한장로교회), 부서기 제임스 김 목사, 회의록 서기 조부호 목사(뉴욕서노회), 부회의록 서기 이재승 목사, 회계 김영생 장로(뉴욕노회), 부회계 김조인 장로(가주노회).



KAPC 신임 총회장에 선출된 엄영민 목사.

엄영민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정말 부족한 사람을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1년 동안 전회기 임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문제의 발단이 된 3개로 갈라진 서가주노회는 22일 저녁에 열린 회무처리 시간에서, 3개 노회 모두 사교노회로 처리되고 회원권을 정지하기로 가결됐다.

3개 노회 가운데 2개의 노회는 이를 받아들여기로 하고, 1개 노회는 총회에서 나와

또 다른 총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총회장 이운영 목사(로스앤젤레스노회, 한미장로교회), 부총회장 최인근 목사(서북미노회), 서기 최기정 목사(캐나다노회), 부서기 정종운 목사(서가주노회), 회의록서기 국남주 목사(뉴욕남노회), 회계 안경희 장로(서가주노회), 부회계 노승호 장로(서가주노회) 등으로 구성됐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제27차 총회 참석자들이 개회예배를 드린 후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World Evangelical Mission Alliance) 제 27차 총회가 지난달 15-21일 독일 프랑푸르트 비전교회에서 열렸다.

‘유럽복음화와 세계선교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윤경호 증경총회장의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종이 되라”는 설교에 이어 임성진 총무의 사업보고가 있었다. 이어 총회 산하 월드미션대학교가 ‘미국신학대학원협의회(ATSS)정회원 가입을 위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윤경호 증경총회장의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종이 되라”는 설교에 이어 임성진 총무의 사업보고가 있었다. 이어 총회 산하 월드미션대학교가 ‘미국신학대학원협의회(ATSS)정회원 가입을 위한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크리스천기업 <세종바이오텍>



세종바이오텍이 새로 출시한 <고려대학교발효홍삼 고려발효삼>



세종바이오텍 데이빗 서 사장

“5년 전 척박한 환경에서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7-80년대를 지나온 우리 세대는 건강 식품의 오남용을 몹소 겪어왔습니다. 이 민 사회의 특수한 상황이라 보기에 는 너무도 건강식품의 오남용이 심하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우리 동포사회에서는 건강식품이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되는 현실 속에서 세종바이오텍의 역사는 시작됐다.

단순한 건강음료에 불과한 건강보조식품들이 마치 큰 효험이라도 나타내는 양 호도 되고 과장 광고의 홍수 속에서 많은 동포들은 한국의 좋은 건강식품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 건강을 생각하는 동포들은 좋은 건강식품에 대한 제대로 된 선정기준 하나없이 광고에 의존하거나 주위에 누가 먹었더니 좋았더라 라는 이야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한 때에 버지니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세종바이오텍이 한 알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

“처음에는 뉴욕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바로 알고 먹읍시다>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제대로 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계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바이오텍 대표 데이빗 서 사장은 한국의 건강식품 중 임상을 통한 효능을 검증 받고 식약청(KFDA)으로부터 기능성을 공인받은 건강기능식품만을 엄선해 미주 동포사회에 공급하는 목표를 세워, 오남용으로 점철되어 있는 한인사회의 건강식품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들을 계몽하기 시작됐다.

처음엔 건강보조식품과 식약청이 공인한 건강기능식품의 차이에 대해 서 사장이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 다들 같은 제품으로 인식했지만,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서 건강보조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점차 알게 되면서 세종바이오텍의 진가를 인정하게 됐다.

“단순한 보조식품은 정부(식약청)의 공인을 받지 못했기에 효능을 경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기능성을 공인받은 제품이 아니니까요. 이에 반해,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은 효능을 공인받은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로고와 기능성(효능)이 제품박스에 표기돼 있어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조식품은 주된 원료의 함량이나 효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정부가 관리하고 인정하는 제품이므로 누구나 편리하게 공인된 제품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업계는 물론

한인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세종바이오텍의 본사는 버지니아에 있고, 엘에이에는 서부지사가 있으며, 아틀란타에는 조지아 지사가 있다. 물론 미 전역에 대리점이나 약국을 통해 공급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sejongbiotech.us, 블로그 sejongbiotech.us)

세종바이오텍의 주 제품으로 세종송보감, 세종뇌보감, 세종요로청보감이 있으며 고려대학교발효홍삼이 최근 신제품으로 발표됐다. 세종송보감은 당뇨조절, 혈관건강, 콜레스테롤 조절기능이 탁월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임상을 한 바 있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이다.

세종뇌보감은 치매예방과 기억력 개선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실버세대를 맞이한 노인들이 즐겨 찾는 제품이다. 특히, 최근 수명이 길어지면서 현대인의 필수 건강기능식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세종요로청보감은 방광염, 요실금, 전립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제품으로 많은 중년 여성분을 비롯해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비대증이나 특히 소변관리가 잘 안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크레이튼대학의 임상으로도 널리 알려진 제품이다.

세종송보감이나 세종뇌보감이나 세종요로청보감은 이미 많은 한국인뿐 아니라 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높는데, 그 이유는 모두 식약청이 공인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의약품처럼 캡슐이나 정제타입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최근 세종바이오텍은 창립 5년 만에 한국 최고의 홍삼을 출시하는 패거리를 이뤄냈는데, 한국 고려대학교에서 개발한 고려대기술지주회사 고려발효삼이 바로 그것이다.

고려대학교발효홍삼 고려발효삼을 고대 생명과학과 교수진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한 발효홍삼으로 자그마치 7가지 기능성을 한국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홍삼 중의 홍삼인 셈이다.

또한 제품박스에 이러한 7가지 기능성이 표기돼 있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이름뿐인 홍삼이나 발효홍삼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 출시부터 많은 사람들로 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이번 고려대학교발효홍삼 고려발효삼 출시와 동시에 건강식품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홍삼시장의 혼탁함도 정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세종바이오텍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고.

끝으로 세종바이오텍 박성욱 LA지사장은 “우리 홍삼의 대부분이 엑산타임으로 만들어져 자녀들이나 미국인들이 편하게 복용하지 못해 국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면에서 고려대발효홍삼은 농축캡슐로 제조돼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세종바이오텍 LA지사 (213-383-8899)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제27차 총회 개최

신임 총회장에 한도수 목사... ‘선교열정’ 재확인

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내용의 보고가 이어졌고, 이후 임원선거가 진행됐다. 이날 임원선거를 통해 신임 총회장에 한도수 목사(브라질 새생명교회), 목사 부총회장에 임성진 목사(미국 월드미션대학교 부총장), 남종성 목사(미국 디아스포라교회), 장로 부총회장에 김현광 장로(브라질 성공회로 동양선교회), 이철진 장로(미국 에리조나 비전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또한 총무에는 이홍주 목사(월드미션대학교 교수), 부총무에 김대성 목사(LA 동양선교회 선교목사), 서기에 남윤희 목사(미국 버뱅크 소망교회), 회계에 노명철 목사(미국 하나님의 광명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총회가 끝난 후 선교지를 방문하며 목회

자들(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의 목회 나눔의 시간과 선교사들의 현장 나눔의 시간을 갖고 생생한 소식을 들으며 기도회를 열었다.

또한 주제 발표자로 황은철 목사가 ‘북한 선교’, 안정삼 장로가 ‘형통의 비결’, 한도수 목사가 ‘세계선교동향과 연합회 선교전략’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는 1987년 7월 11일에 LA동양선교회 임동선 목사를 중심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선교를 이루기 위해 창립했으며, 현재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와 유럽 등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와 세계 30여 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로 구성됐다.

토마스 맹 기자

O.C./엘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아래교회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저녁예배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 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뻑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전 1:00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Youth 예배 오전 10:3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E.M./Youth예배 오후 12:00, A/WANA 오후 12:30, 한아래교회예배 오후 8:00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 마지막주)

최성은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T. (714) 632-9191, 9192 / missionway.com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EM/영아예배 오후 12:45,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김민재 담임목사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외 사무실)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티타임 오전 9:30, 금요일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기독교인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중, 고등부 오후 3시, 청년부 오후 3시,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시, 한국교회 (토) 오전 10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강퍅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후 11:00, (토) 오전 6:00

신현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린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본당), 2부예배 오전 10:00(미라클센터), 3부예배 오전 11:55(미라클센터), EM예배 오후 12: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화-금) 6:00(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한영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미라클센터: 1571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미라클 건너편)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본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수) 오후 7:30, 성령강림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한중수 담임목사
엘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전 1:30

최상준 담임목사
엘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2부 오전 7:30, 3부 오전 9: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토) 오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지사촌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 생명의 사랑, 감동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의 열매를 맺는 교회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1: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주일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염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15, 주일학교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8:0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월일 오전 5:30, (토)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 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예배 목요일 7:30, 목요일예배 목요일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8:0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562-903-2600, Cell: 714-600-7700

김삼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엘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예배 오전 9:3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주일학교 목요일 7:30, 수요일 저녁 8:00, 금요일 저녁 8:00

허기담 담임목사
남가주 잠실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 802-4959, Cell: 714 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 제공, 캐미버 tv, 초고속인터넷, 냉장고, 세탁장,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가정의 달 사랑 특별세일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탈모닷컴(www.talmo.com)에서 베스트셀러인 최고급 제품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탈환 프리미엄 제품인데 한국에서 298,000원에 팔리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300불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탈모에 고심하거나 발모를 원하시는 분이냐 변비가 심하시거나 다이어트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 특히 피부건강에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구연산이나 소금을 300불어치 구입하시는 분들께 300불짜리 한 박스(6개 작은박스들이)를 드립니다.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p>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p> <p>프로모션 A</p> <p>\$280 \$100 +tax</p>	<p>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p> <p>프로모션 B</p> <p>\$270 \$100 +tax</p>	<p>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p> <p>프로모션 C</p> <p>\$280 \$100 +tax</p>
--	---	---

\$300불 HQ헬스 제품 구매시 **\$300 탈환제품** (제품 품질에 따라)

무료 프리미엄TS탈환

\$100 구매시마다 **마네랄 소금 1봉지**

무료 HQ마네랄 SEA SALT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액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확장이전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방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치를 보아먹어 목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그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응연연구소 수료
응연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REVIEW

김세윤 교수 “자유주의 피하고 근본주의 빠져나와 성숙을”



김세윤 외 19명 | 새물결플러스 | 436쪽

‘새로운 한국교회’를 위한 20가지의 처방전이 담긴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새물결플러스)>가 발간됐다.

책은 ‘근본 정신 회복하기’, ‘교회 문화 직시하기’, ‘구조 개혁 시도하기’, ‘참여 방식 점검하기’ 등 4부로 구성돼 있다. 특히 1부 ‘근본 정신 회복하기’에는 김세윤·강영안·차정식·권연경 등 잘 알려진 학자들의 글이 실려 있다.

첫 테이블을 끊은 신약학의 세계적 석학, 김세윤 교수(풀러신학교)는 한국교회 문제의 근원을 ‘신학적 빈곤’에서 찾는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살롬’을 실현하는 데 보이는 전반적 무능함과 일부의 심각한 부패의 근본 원인은 신학적 빈곤이며, 이는 복음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왜곡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예수 복음의 열쇠인 하나님 나라를 종말에나 오는 것으로 미루고 ‘하늘’로 쏘아올려 버림으로써, 그것의 이 땅에서의 현재적 의미를 묵과하는 것이다.” 칭의론을 법정적 개념으로만 이해하여 관계론적 측면을 무시하거나, 예정론의 의미와 의도에 대한 이해 부족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다 보니 전문 분야에서 상당한 지적 경지에 오른 그리스도인들도, 신앙과 지성을 통합하려는 노



(왼쪽부터) 김세윤·차정식·강영안 교수

20인의 길 찾기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력 대신 신앙을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둔 채 원시적 이해만 갖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윤리가 부재하고, 선교에 대한 이해가 편협하며, 미신적 영성과 이단 사설에 쉽게 휩쓸리게 된다. 그 원인으로는 “기독교 신앙고백의 실존적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고백에 따른 삶과 사역을 모색하는 신학적 사고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것”을 지적한다. 김 교수는 “한국교회는 이제 교회를 황폐화하는 무책임한 자유주의 신학을 피하면서, 근본주의

로부터 빠져나와 신학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강영안 교수(서강대)는 한국교회에 대해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모이기, 헌금하기와 전도하기 등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라고 믿지만, 도덕적인 면과 상식적인 면을 상실해 신뢰를 잃었다고 진단한다. 앞서 김세윤 교수와 비슷한 분석이지만, 그는 지성과 이성에 대한 오해를 극복해야 함을 강조한다. 지성과 이성은 인본주의, 세속주의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 믿음의 삶에서 지성과 이

성은, “우리의 의지나 감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차정식 교수(한일장신대)는 ‘빈곤한 설교’를 벗어나기 위해 “인문신학과 설교의 행복한 접속”을 제안한다. 차 교수는 이를 위해 △최소한의 기반으로 인간세계의 인문적 현상에 대한 상식 수준의 이해를 깔고 △대속적 구원신학의 전통에서 맥락 없이 슬하게 정당화됐던 가학

적 고난과 폭력적 희생의 주제를 성찰하여 생명 향유적 지평으로 나아가며 스그 메시지가 사람살이의 다양한 현실 속에서 정치권력과 종교적 권위의 부당한 간섭으로 억압받아온 생명들을 구조적 족쇄로부터 해방시키는 선교적 과제에 민감해야 한다는 등 다소 난해한 방안을 내놓았다.

권연경 교수(숭실대)는 한국교회의 ‘윤리적 실패’의 근원을 ‘값싼 구원론’에서 찾는다. 2년 전 이미 <로마서 산책(복있는사람)>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는 권연경 교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표어에서 벗어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자’고 한다.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한 자들로서, 믿음으로 미래의 ‘구원’을 향해 걸어가 는 우리들을 향해 주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오늘 삶의 무게를 느껴야 한다는 것. “선행적 선택에 조건이 없다고 해서, 그 선택에 목적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외에 다양한 인사들이 계도화된 언어, 사제주의, 공적 신앙, 신학교 구조조정, 성차별, 맘몬 숭배, 무속·상업적 성령운동, 목회자 납세 등에 대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완상 전 부총리가 ‘복음과 성령의 공공성을 위하여’라는 서문을 썼다.

이대웅 기자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LIC #0H66712

1948년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하나 건강 보험의 사무실에 오시면 5분이면 간단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메디케어를 신청 하면서 신청인의 매달 소득과 자산에 따라 자격이 되는 정부 혜택 (메디-칼, 메디케어 보험료 절약 프로그램, 처방약 비용 보조프로그램)도 같이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 2013년 9월 부터 시행 예정인 메디칼 메니지드 케어 (메디칼 HMO) 플랜이란?
- 2014년 부터 시행 되는 칼메디 컨넥트 (메디칼, 메디케어 통합 플랜) 플랜이란?
- 오바마 케어 플랜이란 ?

(상기의 세미나는 특정 상품을 광고 하거나 판매 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을 주제로, 하나 건강 보험의 데이빗 강이 세미나를 하여 드립니다. 장소와 시간은 아래와 같으니 많이 참가 하셔서 변화에 따른 이득과 불이익을 인지 하시고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예약 문의 사항은 TEL:213-500-4563
(전화를 받지 않으면 통화중 이오니 10분내로 전화 올리겠습니다.)

1. 6월13일 2013년 (목) 오전 11시 가든그로브 부활교회(실버아카데미 객소건 목사)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T.(714) 329-7906



DAVID KANG
LIC # OF16211
T.213-500-4563

☎ 213-500-4563
Customer Service
1-855-386-3088

Los Angeles

520 S. Virgil Ave, Suite 204,
Los Angeles, CA, 90020

한국 천주교회의 시발점

조선에서의 학문이란 유학(儒學)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공맹(孔孟)의 사상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학문이며 그 이상의 어떤 학문도 존재할 수 없다고 본 것이 조선조 말기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였다. 유학은 그 본래의 정신과는 달리 공허한 이론적 논쟁에 빠져 쓸데없는 파당을 만들었고 이 파당은 국력을 소진시켜 결국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참혹한 재난을 겪는 비극을 겪는 단초가 되었다.

이러한 국난을 겪으면서 일부 유학자들 간에 자기를 돌아보고 국가의 힘을 기르는 방도를 찾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재래적인 공맹의 사상으로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정신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이런 새로운 학문과 정신은 결국 서구의 그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당시 기독교 선교사들과 함께 들어온 서구의 기술 문명에 접하는 길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조선에서는 매년 중국에 사절단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이 때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 사절단에 섞여 있었다. 이들은 중국에 도착하면 학문적 호기심으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

당하던 서양 선교사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였고, 그들로부터 선진된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접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들은 선교사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식을 얻었고, 천문, 지리, 수학, 과학, 산업과 더불어 세계지도, 천리경(만원경), 자명종, 악기, 포도주 등을 입수하였다.

이들 중 이수광은 그의 「지봉유설(芝峰類說)」에서 예수회 소속 신부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천주실의(天主實義)」를 소개하였고, 정두원은 1631년(인조 9년) 명나라에 진주사(陣奏使)로 북경으로 가던 중 등주(登州)에서 이탈리아 출신 예수회 신부 로드리케즈(J.Rodriguez)를 만난다. 정두원은 그로부터 홍이포(紅夷砲)의 제작 방법과 천문, 역학, 지리에 관한 서적을 많이 받았고, 이듬해 귀국할 때는 천리경, 자명종, 마테오 리치의 천문서(天文書), 직방외기(職方外記), 서양국풍속기(西洋國風俗記), 천문도(天文圖), 홍이포제본(洪夷砲題本:대포) 등의 서적을 갖고 돌아왔다. 특히 그는 홍이포를 국내에 반입하여 국왕 인조와 백관이 임석한 곳에서 시험 발사 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으며, 서양 무기의 위력을 체득하게 하였

다. 이 때 천주교 서적도 일부 반입되었으나 반포되지 못하고 궁궐 창고에 사장되고 말았다.

일부 학자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고 있었을 때에 과학 서적과 서구에 대한 학문을 탐구하던 사람들 중 권력에서 소외된 남인 계열의 소장파로 권철신, 권일신, 정약용, 이벽(李蕨), 이승훈(李承薰) 등이 있었다. 이들 중 권철신, 정약전, 이벽 등이 주축이 되어 서학의 교리서를 읽고 연구하면서 여기에 새롭고 바람직한 사회건설과 윤리 체계의 틀이 있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1777년(정조 원년) 겨울, 이들은 서울 동쪽, 지금 양주군 마현(馬峴) 근처에 있는 앵자산 사찰이었던 주어사(走魚寺), 천진암(天眞巖) 등지로 옮겨 다니면서 강학회(講學會)를 열었다. 천주교의 교리를 연구하고 교리서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주일을 준수하여 노동을 금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리며, 육식을 금하는 날을 정하는 등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계율들을 지켜 나갔다. 그러나 초기 유학자들에게 의해 수용된 천주교회는 현실 사회와 정치제도에 맞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학구적 연구에서 시작된 가톨릭교회는 그 학자들이 관직에 등용되거나 축출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치 상황과 연결되어,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던 중 이승훈의 부친 이동욱이 1783년(정조 7년) 중국에 가는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북경에 가게 되었다. 이때를 이용하여 서학을 연구하던 이들이 이승훈을 동지사 일행에 팔려 보내 중국으로부터 서학 서적을 구해 오도록 하였다. 북경에 도착한 이승훈은 그곳의 천주교 신부들과 교제하면서 서학의 여러 학문에 접하고 연구를 하는 한편 천주교에 대한 교리 강습도 받았다. 이승훈은 교리 강습을 받는 동안 이 교리야말로 참 진리라 확신하고 귀국할 무렵인 1784년 2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 후 북경에 있는 북성당에서 예수회 소속 신부 그라몽(Louis de Grammont)으로부터 영세를 받아 한국인 최초의 수세자로 천주교인이 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는데 그 때 그의 나이 27세였다. 이승훈은 1756년(영조 32년) 강원도 평창(平昌)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그 재주가 널리 알려졌고 20세 전

후에 그 학식과 명성이 들어나기 시작하였다. 25세 때 진사(進士) 시험에 합격한 그는 평택 현감(懸監)을 지냈다. 그는 정약용의 매제이고 이 벽과는 사돈 관계였다. 이승훈의 수세는 북경에 머물고 있던 여러 천주교 선교사들에게 일대 뉴스가 되었고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이승훈은 한국 교회의 초석이 되라는 의미로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영세명을 받고 다음 달에 여러 권의 교리서, 십자가상, 성화, 묵주 등 천주교 관계 물품들을 갖고 귀국하여 기다리던 서학파의 환영을 받는다. 한국의 천주교회는 선교사가 입국하여 전교(傳教)한 결과로 신자를 얻는 일반적인 형태와는 달리, 국외에서 신부를 찾아가 신앙을 고백하고 영세를 받는 구도(求道)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한국의 천주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승훈이 영세를 받은 해인 1784년은 한국 개신교의 첫 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 M.D.)이 입국한 1884년에서 정확히 100년 전으로, 개신교보다 1세기를 앞선 교회로 출발하였다.

글=전 미주장신대 총장 김인수 목사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열 네번째 지팡이

▶요 12:1-끝, 마지막 일주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복음서를 통합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시간에 관한 구절들을 찾아서 배열해 보면 (1)토요일, 요 12:1,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힌 날이 금요일이며, 그 저녁에 유월절(진정한 의미)이 시작되므로 엿새 전이면 목, 수, 화, 월, 일, 토요일로 계산하여 요 12:1의 사건은 토요일에 벌어진 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유대인의 하루는 오후 6시에 시작하여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주요 사건은 요 12:1-11,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아드립니다(막 14:3-9, 마 26:6-13, 화요일쯤으로 추정).

(2)일요일, 요 12:12, '그 이튿날에는' 예루살렘 성 입성(막 11:1-10, 마 21:1-11, 눅 19:28-40):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

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막 11:11).

(3)월요일, 막 11:12-14, '이튿날' 성전청결: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작하신지라... 무화과를 저주하시고(마 21:18-22).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막 11:15-18, 마 21:12-16, 눅 19:45-48, 제 2차 성전청결/참고, 요 2:13-22, 제 1차 성전청결).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막 11:19). 무화과 저주 사건은 성전청결의 전조로서 유대인들의 종교행위만 무성한 것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4)화요일, 막 11:20-26, 무화과나무의 교훈(참고 마 21:21-22):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막 11:27-33). 하지만 유대인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권위를 논란하고 부인합니다(마 21:23-27). 이에 메시아(예수)를 부

인하는 것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마 21:28-22:14, 막 12:1-12). 계속해서 공관복음에는 예수께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또 마지막날, 즉 종말과 심판에 대해 감람산 강설(막 13:3-13:37, 마 24-25장)이 있습니다. 막 14:1,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시간을 밝혀주며, 마리아의 향유사건이 나오고(토요일 참고)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확책합니다.

(5)수요일, 예수님의 사역이 없습니다. (6)목요일, 막 14:12-16(마 26:17-19, 눅 22:7-13)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함: 공관복음에는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을 무교절 첫날 즉 유월절로 묘사하고 있는데(막 14:12-16, 마 26:17-19, 눅 22:7-13) 이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행사를 유대인의 공식적인 행사보다 하루 전에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께서 유월절의 제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는 유월절의 양이 없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 해에는 (금요일이 끝나는) 해가 진 후가 유월절의 시작이었으며 유월절의 양은 공식적 월력에 의하여 금요일 오후에 성전 경내에서만 잡았기 때문입니다(F. F 부르스, 신약사, 나용화 역, 217-218 쪽 요약)

(7)금요일(유월절), 요 13:1, '유월절 전'이라 함은 유대시간으로 금요일이 시작되는 저녁 시각으로 추정해 봅니다. 금요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요 13:1-20), 마지막 만찬(막 14:22-26, 마 26:26-30, 눅 22:14-23)을 베푸십니다. 이어서 요 한복음 14.15.16장에는 다락방 강화라고 일컫는 말씀(신성과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고 예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17장) 금요일 새벽에 감람산(요 18:1,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셔서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에게 붙잡히게 되어 재판관을 받으시고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8)안식일(무교절), 마 27:62-66, 무덤을 인봉하고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다.

(9)안식 후 첫날, 일요일 아침, 요 20:1,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초실절) 요 20:11-18 막 16:9-11, 마 28:9-10,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 막 16:12-13, 눅 24:13-36,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요 20:19-23, 막 16:14, 눅 24:37-43,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요 21:1-14, 디베라 호숫가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요 21:11, (오한 복음에만 있는 표적 6가지) 베드로에게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시다 요 21:15-25, 내양을 먹이라, -회복의 말씀 막 16:15-18, 마 28:16-20, 눅 24:44-49 지상대명령, -고별의 말씀 막 16:19, 눅 24:50-51, 하늘로 올리우시다(참고, 행 1:6-11) 눅 24:52-53,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함 막 16:20,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하다.

글=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썩난 지팡이 저자 이학진 장로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맵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 : (213) 402 - 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농협 **홍삼**은 100% 국산 **올림픽+하바드**

한삼인은 정직합니다.

www.korginseng.com **323.737.8888**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사랑헬스케어는 여러분을 의료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크리스천 헬스케어 플랜 월\$62부터

크리스천 건강검진 플랜 월\$30부터

16만 크리스천 가정과 많은 기독교 단체가 **건강보험 대신 Healthcare Sharing Ministry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621 S. Virgil Ave. #410 Los Angeles, CA 90005
 Tel.213-986-8119 Fax.213-254-0464
 www.saranghealthcare.org

문의전화 이원준 전도사 213-700-9212
 제임스정 전도사 714-873-8724

참여단체 CTS AmericaTV GBC 미주복음방송 AM1190 CGNTV USA

사랑이었습니다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내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뽑으라면 인천시 도화동 풀창 시골에 살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3차 5개년 경제개발을 부르짖으면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을 때, 우리 집은 정말 보잘 것없는 허름한 판잣집이었습니다. 조그만 붉은 흙마당에는 강아지가 젓

은 흙발로 뛰어 놀고, 구석에는 잡풀 우거진 작은 꽃밭이 있었습니다. 담 밖의 손바닥만한 텃밭에는 어머니가 손수 일구신 옥수수, 배추, 무 같은 채소들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국민 스포츠는 프로 레슬링이었습니다. 김일의 박치기, 천규덕의 당수, 그리고 여건부의 발차기는 어리버리한 국민들의 혼을 빼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훗날 이 레슬링 경기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레슬링은 가난에 찌든 국민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유일한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굳이 마을 반상회를 조직하지 않더라도 경기가 있는 날이면 온 동네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모여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가끔 도둑이 들었다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기껏해야 도난 당하는 품목들이 두꺼비집을 열어서 “전기계량기”를 떼어가거나 “수도검침기” 아니면 고추씨나 쌀 등을 훔쳐가는 좀도둑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딱한 도둑님들은 무거운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들어서 몇 시간 동안 끄덕거리며 운반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도둑들입니다.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못 싸와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소위 “육성회비”라고 불리는 수업료를 못 내서 썩 고생을 하는 급우들도 꽤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추억 중의 하나는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정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동네 아

이들과 노느라 정신이 팔려서 숙제를 못해도 다음날 담임선생님에게 “불이 나가서 못했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국가가 불을 끄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항학열로 불타올라도 그냥 자야지요! 유난히 춥고, 덥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시절이었습니다. 저의 두 아들들에게 그 때 이야기를 가끔 하면 거짓말이라고 신경질을 냅니다. 자기들을 혼계하려고 꾸며낸 역사 왜곡이라고 난리를 떨니다. 하지만 그 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너의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주저없이 가난했던 인천 풀창 시절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을 원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도 그 시절의 집

이기를 원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 때는 사람 냄새 물씬 나는 훈훈함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신 사무치도록 그리운 아버지가 계셨고, 자애롭고 부지런한 어머니가 함께 하셨습니다. 늘 친구 같은 형, 그리고 언제나 골칫거리 문제들을 쉬지 않고 일으키는 그리운 벗들이 있었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 그리고 한 울 한 울 정겨운 추억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뽀아내는 따뜻한 열기라는 것을! 아아, 그 사랑이 참말이지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1)

들은만큼 영향 받는다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자라오면서 어머니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적은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씀만큼은 애써 동의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를 통해 전체를 평가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보며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사람은 들은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안다(Knowledge)’는 것은 들었다는 것의 용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듣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듣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근원이 ‘듣음’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성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듣는 생활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듣는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파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멋진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듣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듣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약한 영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도 귀를 닫지 아니하면 가치

없는 소음을 들도록 만듭니다. 소음도 자주 듣다보면 익숙해 지기 때문입니다. 한적한 교외지역에서 살던 분이 뉴욕 중심가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각종 도시소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척이나 괴로워했지만 나중에는 이에 익숙해진 경험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도시 소음 없이는 잠조차 청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모슬렘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부임 초기에 가장 힘든 것 중의 하나는 확성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기도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새벽, 오전, 오후 할 것없이 무차별적으로 메아리치는 이 기도소리에 영적

고뇌를 경험하기도 하고, 활동 자체도 방해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소리에 익숙해져가는 자신들을 보며 너무도 놀라워한다는 고백은 ‘듣음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하게도 남음이 있도록 만듭니다.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들음을 통해서 신앙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자세를 개발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들을 가치도 없는 소음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도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들을 귀’를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려서 듣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쁨의 가정

한국 부모님들만큼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러기 아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버는 연봉 전체를 유학 간 자녀와 아내를 위해 보내고, 본인은 살던 집을 팔거나 세를 주고 월세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머물며 끼니도 대충 때우며 생활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지만, 자녀를 위해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막상 유학을 온 아이와 엄마도 그렇게 넉넉한 생활을 하지는 못합니다. 워낙 비싼 학비와 렌트비, 그리고 생활비로 인해 겨우 생활을 해가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며 교육시키는 부모님의 열정은 궁

정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쓰고 투자를 하는 만큼 자녀들에게 집착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보통 호주인들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학을 보내놓고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아가 결혼 후에도 부모님들은 여전히 뭔가 도움을 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여 기지만, 지나친 애정과 지원으로 종종 자녀들은 독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겐 6명의 자녀가 있는데 둘째인 아들을 제외하고 5명이 딸입니다. 그런데 벌써 다섯째가 좋아하는 남자 아이가 생겼습니다. 같은 또래의 남

자 아이로,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옆집 아이입니다. 집이 가까워 자주 놀러 다니더니 많이 친해졌다 봅니다. 아내 말로는 “엄마! 샌드위치 하나만 만들어 줄래?” 아니면 “롤리팝 하나 가져가도 돼?”라고 하고는 옆집 남자 아이에게 갖다주곤 한답니다. 마치 제 짝을 만나면 엄마 아빠를 쉽게 떠날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장성하면 떠나겠지요. 그것이 정상이고 진리입니다. 성경에서도 “부모를 떠나 돌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결혼 이후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행복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부

모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일찍부터 스스로 서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과 표현 양식에 변화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과보호 사랑이 아니라 자녀들을 훈련 가운데 둘 수 있는 강인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부모의 희생을 통한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자녀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거나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실망이 따를 수 있고 자녀에게는 지나친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나친 희생을 바탕으로 주어진

사랑에는 반드시 집착과 보상심리가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자신의 처지에 맞게 무리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신들의 삶을 감사하며 누리는 여유 있는 모습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인생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을 만큼만, 자녀가 보상해 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을 만큼만 사랑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기대가 적으면 실망도 적고 너그러워질 수 있으며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우리도 자유롭고, 우리의 자녀들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상담학 박사 김훈 목사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Life



‘파더스 데이’ 선물로 맞춤양복 어때요?

LA 골드핑거 테일러 프로모션 진행 중



‘파더스 데이’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이맘 때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선물이다. 받는 이의 취향, 성격, 사회적 지위, 실용성, 소장성 등 많은 요소를 생각하면서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파더스 데이’를 맞아 남성들에게 인기있는 선물로는 양복이나 구두가 단연 1위로 꼽힌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선물한 사람의 소중한 마음을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어 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성복이나 맞춤양복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맞춤양복의 경우에는 소재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맞춤양복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는 LA ‘골드핑거 테일러’ 김병호 대표는 “파더스 데이 시즌을 맞아 맞춤양복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며 “선물용으로 고급 맞춤양복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기성복 상품권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자신의 몸에 딱 맞는 고급 맞춤양복이 선물용으로 제격이라고 김 대표는 덧붙인다.

100% 핸드 메이드 맞춤 수트의 40년 외길 인생을 걸어온 김병호 대표는 “가장 뛰어난 수트는 퀄리티가 좋고, 아름답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되는 옷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979년 서울에서 양복점을 시작해 한국 맞춤양복기술대회에서 수차례 수상 경력과 심사의원의 활동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실력파다. 맞춤 수트의 장점에 대해 그는 “엄정한 공정을 거쳐 몸에 편안하게 밀착되는 정교한 실루엣을 만들고, 한치의 오차 없이 체형을 완벽하게 커버한다”면서 “개성과 품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랜 세월 수백 수천 경우의 수에 따라 때와 장소, 사람 개개인에게 맞춤형 옷을 만들어 본 노하우는 기성복이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일까. ‘골드핑거 테일러’엔 가족 같은 고객들이 많다. 고객이 언제 누구와 만날 때 입을 건지,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상담에 김 대표는 최선의 공을 들인다. 물론 최상급 원단과 꼼꼼한 바느질이 돋보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한 번 ‘골드핑거 테일러’의 옷 맛을 알면 아무리 비싼 최고급 기성복 브랜드로도 만족이 안 된다고 말하는 단골들이 많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가장 기분 좋은 일은 고객들이 만족스러워 할 때”라고 말한다.

‘골드핑거 테일러’에서는 현재 목회자를 위한 20퍼센트 특별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오픈시간은 월-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소: 975 S. Vermont Ave. #102, LA(나성플라자 내)

문의: (213) 386-5858

◆맞춤수트 제대로 알기

천편일률적은 NO!... 개성시대에 맞는 나만의 옷

포멀 웨어 스타일을 완성하는 비스포크

비스포크 BESPOKE

맞춤양복이라 하면 흔히 비스포크(bespoke)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하지만 사실 모든 맞춤 수트가 비스포크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시스템 오더 반맞춤이나 핸드메이드 맞춤을 비스포크라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엄밀히 하면 비스포크는 원단의 선택에서부터 패턴 제작, 재봉까지의 모든 과정이 주문자에게 완벽하게 맞춰진 방식을 뜻한다. 그리

고 이 과정에서 테일러는 수트 제작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완벽한 수트를 만들기 위해 고객의 신체적인 특성뿐 아니라 취향과 걸음걸이, 생활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제작도 기성복에 비해 훨씬 섬세한 공정을 거친다.

기성복처럼 접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바느질로 완성하는 비접착식을 고수해 착용감이 더욱 뛰어나다. 옷을 받아보기까지는 보통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에게 딱 맞는, 세상에서 단 한 벌뿐인 옷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 기다림은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비스포크 수트의 제작은 다양한 소재와 컬러의 패브릭 가운데 원하는 원단을 선택하고 체촌을 통해 정확한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테일러는 원단과 고객의 신체적 특징, 취향과 트렌드를 반영하고 버튼의 수나 브이존의 깊이, 어깨 형태와 허리 드롭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스타일을 제안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체의 형태는 평면 패턴으로 옮겨 재단되며, 이를 가봉해 어깨와 품, 가장 등을 일차적으로 체크한다.

가봉은 현재의 패턴이 몸에 잘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비스포크 수트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공정이라 할 수 있다. 가봉이 끝나면 앞판의 제작과 재봉이 진행된다. 수트의 착용감은 원단과 패턴, 바느질에 따라 결정되는데, 심지를 기계로 누비면 서로 다른 성질의 부자재들이 함께 묶이므로 반드시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테크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충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갹삼로 만든 발효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4층)

세리토스현대 CERRITOS HYUNDAI

EQUUS SIGNATURE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4,9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1,0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8,3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499 Lease per month plus tax

SONAT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2,6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5,5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109 Lease per month plus tax

ELANTR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1,7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Total Drive off...\$3,199
Term...24
Miles per Year...12,000

\$99 Lease per month plus tax

ACCENT GLS M/T 2013

VIN# NDU423702

Cash Out of Pocket...\$2,8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Lease Cash...\$500
Total Drive off...\$4,2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89 Lease per month plus tax

한인담당 Alex Shin
CERRITOSHYUNDAI.COM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6월 12일 까지입니다.

Assurance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l. 562 900 2399

America's Best Warranty
18818 Studebaker Rd
Cerritos, CA 90703

시 손바느질로 제작해야 한다. 이후 중가봉과 마지막 바느질을 거치면 오직 나만의 수트가 완성된다. 이 일련의 공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제작된 옷의 퀄리티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비스포크를 남성 클래식 패션의 정수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MATERIAL

직물을 위한 최고의 소재
울과 그 외의 주요 직물 소재

직물의 소재

울 WOOL

울은 양털로 만든 섬유를 뜻한다. 영어에서는 양뿐만 아니라 캐시미어 산양이나 비쿠냐, 알파카, 낙타와 양고라 토끼 등 동물의 털에서 얻은 것을 모두 울이라 통칭한다.

원모에는 오물이나 지방질의 분비물 등 불순물이 많이 붙어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는 정련과 세모를 거쳐 섬유로 제작한다. 케라틴을 주 성분으로 하는 양모는 곱슬곱슬한 모양을 지녀 신축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힘을 가해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고 탄력성이 좋아 옷으로 만들었을 때 모양새가 우수하다는 것, 물결 모양의 권축이 있어 방직성이 좋고 공기를 많이 함유할 수 있어 보온성이 뛰어나다는 것, 습기를 잘 빨아들이면서도 수분 흡수 시에 스스로 열을 발산해 피부 온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역시 울의 장점으로 꼽힌다. 울의 모질은 양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 실제로 야생 양의 털은 열룩이 있고 뻣뻣하지만, 섬유를 염두에 두고 개량, 사육한 양의 털은 색상이 균일하며 감촉이 부드러워 복지로 적합하다. 그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것은 역시 메리노 울(Merino Wool). 굵기가 보통 24 마이크로 이하인데 품질이 좋은 것은 캐시미어에 비견될 정도로 섬세하다. 게다가 색이 균일하고 권축이 많으며 탄성까지 좋아 가장 우량한 양모로 취급된다.

비쿠냐 Vicuna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섬유 중 가장 가는 것은 비쿠냐의 털이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보통 75마이크론, 일반 양모가 22-34마이크론, 최상급 캐시미어가 14마이크론 정도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두께가 10-12마이크론밖에 되지 않는 비쿠냐의 털이 얼마나 가는 것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덕분에 이것으로 만든 원단은 극도로 부드러운 감촉과 가벼운 무게를 자랑한다. 또 광택이 아름답고 밀도와

탄력이 높으며 보온력도 뛰어나다. 과연 안데스의 황금이라 불릴 만한 소재다. 그러나 최고라는 타이틀을 가진 것들이 대개 그러하듯 비쿠냐 역시 가격이 만만치 않다. 공급량이 극히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밀렵으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1973년 CITES(멸종위기 야생동물 국제거래 협약)는 비쿠냐의 거래를 규제했다. 현재는 상용 목적을 위한 국제 거래가 일부 허용되고 있지만 모든 거래는 페루 정부의 관리 아래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실제로 털의 채집은 2년에 한 번씩 '차크(Chak)'라고 부르는 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페루 정부는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최대 15년의 징역을 부과한다.

비쿠냐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털은 약 200그램이며 손으로 최상급 털을 선별한다. 1년에 얻을 수 있는 가공 전 털의 양은 5000킬로그램 정도로 캐시미어 1년 공급량이 1000만 킬로그램, 울이 50억 킬로그램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이다.

모헤어 MOHAIR

모헤어는 양고라 산양의 털이다. 우리가 흔히 양고라라고 부르는 것은 양고라 토끼의 털로 그 생김새나 성질이 모헤어와는 크게 다르다. 모헤어는 알파카나 캐시미어처럼 부드럽지는 않지만 질기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흡습성이 일반 양모의 두 배에 달해 습도가 높은 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을 수 있고, 구조상의 단열 공간이 넉넉해 겨울철에도 따뜻하다. 빛을 많이 반사하므로 광택감이 부족한 다른 소재와 종종 혼방한다는 점, 염색성이 높아 선명한 색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장점이다. 모헤어의 굵기는 보통 25-45마이크론 사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까닭은 산양이 나이가 들면서 털도 두꺼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카프나 스웨터, 수트 등 고급 의복에 사용하는 극세 모헤어 직물은 생후 6개월 정도 지난 새끼 산양의 털로 제작한다. 반면 나이 든 산양의 털은 카펫이나 두꺼운 패브릭을 제작하는 데 주로 쓰인다. 19세기 중반까지는 터키의 양고라 지방에서 대부분의 모헤어를 생산했으나 점차 수요가 증대하면서 유럽과 남아프리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양고라 산양을 사육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오늘날 가장 많은 모헤어를 생산하는 곳은 남아프리카이며, 이 지역의 제품은 광택과 청결, 섬유 균일성에서 모두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다.

캐시미어 CASHMERE

캐시미어는 인도 북부와 몽고, 중국, 이란 등지에 서식하는 염소



(Capra Hircus-laniger)의 털로 만든 직물이다. 독특한 이중 구조의 털을 지닌 이 염소는 겨울이 되면 기존의 털 안쪽으로 새로운 솜털이 자라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털이 다시 탈락하는 일종의 털갈이를 한다. 이 시기 전후에 안쪽의 털만을 모아 제작한 것이 바로 캐시미어다. 털의 채집은 양모처럼 깎는 것이 아니라 칼질 모양의 도구로 수차례 빗질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에도 거친 털과 부드러운 털을 일일이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 강도와 신장력, 탄성 등은 일반 양모와 거의 비슷하나 훨씬 두께가 얇아 감촉이 부드럽고 광택이 우아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고급 소재로 여겼다. 또 무게가 가볍고 보온력도 뛰어나 겨울철 의복 소재로도 아주 적합하다. 품질은 털의 두께가 가능하고 색깔이 밝을수록 우수한 것으로 보는데, 보통 내몽고의 것을 가장 상품으로 친다. 한 마리의 염소에서 얻을 수 있는 캐시미어의 양은 대략 50-200그램 정도. 그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가슴 부분의 털을 포함한 최상품은 100그램 정도에 불과하다. 한 벌의 코트를 만들기 위해

무려 30마리 이상의 염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캐시미어 제품의 가격이 왜 높을 수 밖에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실크 SILK

널리 알려진 것처럼 실크는 누에 고치에서 뽑아낸 섬유다. 명주 또는 견이라고도 한다. 누에고치는 누에가 자신의 몸을 둘러싸고 뿜은 단백질 분비물이 굳어진 것인데, 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피브로인(Fibroin)이라는 단백질은 잡아당기면 길게 늘어나 섬유화하는 성질이 있어 한 개의 고치에서 대략 1500미터 정도의 가능과 긴 섬유를 추출할 수 있다.

실크의 가장 큰 특징은 매끄러운 촉감과 광택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이런 독특한 광택은 빛을 각도에 따라 다르게 반사시키는 삼각형 구조에서 기인한다. 통기성과 보온성, 흡수성이 좋고 염색성이 우수해 뛰어난 발색을 자랑하며 드라이프롬도 뛰어나 옷으로 만들면 실루엣이 우아하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오래 전부터 고급 소재로 쓰였고 옷감의 여왕이라 불린다. 울이나 리넨과 중

종 혼방해 쓰기도 한다.

리넨 LINEN

1년생의 아마의 줄기에서 채취되는 섬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아마에서 섬유를 추출한 후 방적한 실과 원단을 리넨이라 부른다. 수분의 흡수와 발산이 그 어떤 천연 섬유보다 뛰어나고 통기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하절기에도 쾌적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내구성과 강도도 높고 위생적이어서 옷 이외에도 커튼이나 테이블보, 침구류 등에도 자주 사용한다. 주름이 잘 생기고 염색이 어려워 발색이 좋지 않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퍼머넌트 프레스 등의 가공을 거치거나 폴리에스테르나 코튼, 실크 등을 혼방하는 방법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원사의 굵기와 직조 방식에 따라 두껍고 거친 것부터 얇고 부드러운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작이 가능하다. 복지로 사용되는 고품질의 리넨은 촉감이 부드러우며 조직이 고르고 촘촘하다.

(출처: 제일모직 골든텍스 스타일북)

감림 수양관 여름수련회 접수

새로운 지도자가 2세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새로이 단장한 감림산 수양관에서 여름 수련회를 접수중

- 30-200명 수용가능9개성전(학생, 전교인, 프레스 디아스)
- * 한, 중, 일, 양식제공 (별도 대형 2개 주방시설 완비)
- * 동시에 3 그룹 300명 수용 (침실, 샤워, 냉 온방 시설)
- * 300대 주차장, (축구, 족구, 배구, 농구 운동장)
- * 어린이 역사, 자연학습장(동 식물농장, 풀장시설)

치유 사역 : 영육간에 지치고 병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세계적으로 능력있는 강사 30명 초청)
- JS Healing Ministry: President Moses S. Kim Pastor (213)216-3700

중·고교 학생들의 금식기도 팀은 무료로 봉사합니다.

다민족 2세들을 하나가 되게하는 비전 실천: 기초과학 부분인 수학을 지역사회에 10개 지부에서 7년간 봉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부설립을 지원합니다. www.glimathclub.com

노후를 하나님의 동산에서 함께 보내며 봉사할 분을 모집합니다. 각종 건물관리에 은사를 가진 분을 모집합니다.

24101 Christs Tree Ln, Perris, CA 92570

감림 수양관 연락처 (951) 943-4207, (909)-993-3939, (323) 868-9191, (213) 216-3700
www.gamrimsan.com / www.kalimretreat.com / www.retreatkalim.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방베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장,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인,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전기 · 철공 용접, 게이트 모터 수리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경남 철공소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툽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밀크커피/한국차(유자차, 검은콩 울무차, 대추 생강차) 핫초코/카푸치노/블랙커피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와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스마트 월드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특대인양 \$3,900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완전 인가 건강 필라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움이는 실리콘! 자동차 핸들 커버 \$30 강력한 울이온·원격인식 방식

졸음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승기력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로데오 갤럭시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one stop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오바마케어, 제대로 알자

“의료보험 없는 한인들에 희소식”



이원준 전도사
크리스천헬스케어미니스트리

Q 1. ‘오바마케어’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요?
 ▶ ‘오바마케어’는 미국 연방정부의 의료보험 관련 법안이고요, 정확히 ‘법’으로 제정된 날짜는 2010년 3월 23일이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아 2014년 1월 1일부터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Q 2. 그런데 미국은 왜 이렇게 의료서비스 비용이 비싼 걸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비싼 것 같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병원비가 비싼데요. 수치적으로 보면 OECD 평균 의료비의 2배가 넘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정부의 규제나 프라이스 컨트롤(price control) 즉 정가(定價)화 돼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의료서비스 비용을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왔는데, 결국 이 원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다. 또한 보험회사가 병원과 계약을 할 때 정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청구한 의료비용 중 약 35% 즉, 정해진 퍼센트로 지불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계속 가격을 올려서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Q 3. 또 현재 보험시스템을 보면, 의료보험료도 개인마다 천차만별이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지병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아주 높게 책정되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 지금까지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지병이 있거나 병력이 있는 경우에 보험가입 자체가 거부되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병력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바마케어에서는 보험회사가 병력이 있는 분들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되지만 건강한 분들은 병력이 있는 분들의 높은 의료비를 함께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으로 다 사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네, 2014년 1월부터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벌금은 일년에 \$95 혹은 소득의 1% - 둘 중 높은 것으로 내도록 돼있습니다. 2015년에는 \$325 혹은 수입의 2% 중 큰 금액, 2016년부터 이 벌금은 \$695 혹은 소득의 2.5%로 점점 올라갑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설명하면 연간 가구소득이 \$50,000인 가정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첫 해 \$500 둘째 해 \$1,000 셋째 해부터 \$1,250의 벌금을 내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 5. ‘오바마케어’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들도 많이 제기됐고, 반대했던 분들의 우려도 많았는데요.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 우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5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이 있는 회사들의 문제인데, ‘풀타임 직원’이라는 것이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이런 분들을 50명 이상 고용한 회사일 경우, 직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Q 6. 특별히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단체들이 오바마케어에 대해 심각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었는데요. 거기에도 여러 이유들이 있었죠?
 ▶ 많은 기독교인들과 단체들이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세금을 통해 낙태를 위한 피임약이나 낙태 수술 등의 보조금을 모두가 의무적으로 내게한 것이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없는 일이라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내용과 관련해 종교단체와 종교학 교 등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5월 초 발의해서 처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예외를 적

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술, 담배, 마약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술, 담배, 마약을 사용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부담하는 것 역시 모순이고, 기본적으로 포함한다는 예방검진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술과 담배 그리고 성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2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이란 것 또한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 그리고 초창기에 가장 문제로 삼았던 베리칩은 오바마케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단이 베리칩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리칩은 기능적으로 치매나 심장발작 등으로 갑자기 정신을 잃었을 경우 응급실에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목적인데 너무 과하게 오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하게 사용될 수 있고 또 악용될 수 있는데, 이것이 악용될 경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크리스천들은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Q 7. 오바마케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나요?
 ▶ 현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합법적인 거주자는 전체 인구의 약 18%인 5천만명 정도인데, 그 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신문사가 자영업업을 하시는 교민들의 건강보험 보유 상황을 전화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무려 72%에 달

하는 교민들이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놓고 가정하면 교포 사회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실제소득보다는 TAX보고를 적게 높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 혹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8. 어떤 혜택을 받게 될 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예, 좀 더 자세히 각 개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될 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바마케어는 한 가정의 수입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혜택의 정도가 결정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카테고리 중 한 카테고리에 속하게 될 텐데요. 이 카테고리에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편의상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직장그룹보험을 통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받고있다.
2. 가구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00% 이하이다.
3. 가구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00% 이상 400% 이하이다.
4. 가구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400% 이상이다.
5. 50인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6. 비이민비자 소유자이거나 신분미비자이다.
7. 신앙 양심상 오바마케어를 거부해서 동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 우선 첫번째 카테고리는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받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오바마케어가 어떻게 진행되던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그룹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직원들이 부담하는 금액의 한도를 급여의 9.5% 이내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회사가 적은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경우 그리고 종업원 본인만 보험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모든 분들, 여기에는 자영업업을 하시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자신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우선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될 첫번째 카테고리는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00% 이하인 분들입니다. 연방빈곤기준 (Federal Poverty Level)이란 연방 정부에서 매년 책정하는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 생계비를 말하는데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수혜자격을 결정하는 소득기준입니다. (아래 표를 간단하게 설명)

4인가족을 기준으로 연소득 \$23,550이 연방정부에서 정한 빈곤 기준 100%에 해당합니다. 이 분들은 정부로부터 무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무료 건강보험을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Medical)이라고 부릅니다. 전국적으로 약 1,600만명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260만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저희 한인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메디칼(Medical)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고 혜택이 필요한 분들은 많기 때문에 지금도 예약을 하면 3개월씩 걸리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자료 제공= 비영리의료사역단체 크리스천헬스케어미니스트리
 > 웹사이트: www.chministries.org
 > 한국어 웹 www.chman.org
 > 주소: 621 S. Virgil Ave, #460 Los Angeles, CA 90005
 > 전화: 213-986-8119 (한인지부)
 > 이메일: info@chman.org

Q 4. 앞으로 보험상품들을 의무 연방빈곤기준 (Federal Poverty Level) 수입가이드라인 (04/01/2013 ~ 03/31/2014)

	1	2	3	4	5	6	7
100%	\$11,490	\$15,510	\$19,530	\$23,550	\$27,570	\$31,590	\$35,610
133%	\$15,282	\$20,628	\$25,975	\$31,322	\$36,668	\$42,015	\$47,361
400%	\$45,960	\$62,040	\$78,120	\$94,200	\$110,280	\$126,360	\$142,220

Q 4. 앞으로 보험상품들을 의무 연방빈곤기준 (Federal Poverty Level) 수입가이드라인 (04/01/2013 ~ 03/31/2014)

아이토크비비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아이토크비비와 함께하는
집전화 바꾸기 캠페인

지금 가입하시면 **최대 6개월 무료 + 무계약**

행사기간: 2013년 6월 14일 까지

글로벌 플랜

\$24.99/월

-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통화
-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글로벌 플러스 플랜

\$34.99/월

- ▶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 ▶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 ▶ 한국 휴대전화까지 무제한 통화

패밀리 알뜰 플랜

미국 최저가 **\$4.99/월**

- ▶ 수신 무제한
- ▶ 미국 로컬 장거리 2센트
- ▶ 기존 전화번호 유지 가능

미국 무제한 플랜

\$9.99/월

- ▶ 미국 전지역 무제한 통화
- ▶ 발신자 표시, 착신전화 기능 제공

친구추천 프로모션

- ▶ 3명 추천하면 6개월 무료
- ▶ 2명 추천하면 3개월 무료
- ▶ 1명 추천하면 1개월 무료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www.Korea.iTalkBB.com** LA 직영점 (코리타운 갤러리아 304호) **213.559.7557** | **1.800.872.2902**

아이토크비비 [30일 환불 보장] **품질의 자신!**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

지금 가입하고 친구추천 하면 **1개월 무료**

고객지원 문의 **1.800.875.8318**

365일 오전 6시~오후 10시(30분PST)

www.phhyundai.com

복이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SUPER STORE

월 스페셜!

좋은 이자율! 최상의 서비스!
현대를 만나는 가장 좋은 곳!

갖고 싶은 현대차를 가장 좋은 이자율로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욱 만족을 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세요!



2013 ACCENT GLS (STK #398513)

36 Month lease/12k mile/T.D.O 2,999

MSRP \$16,890

PH HYUNDAI D/C	\$1,373	MILITARY REBATE	\$500
COMP.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82 + TAX



2013 SONATA GLS (STK #713499)

36 Month lease/12k mile/T.D.O 2,999

MSRP \$22,375

PH HYUNDAI D/C	\$1,325	LEASE CASH	\$1,000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123 + TAX



2013 EQUUS SIGNATURE

24 Month lease/12k mile/T.D.O 4,999

MSRP \$60,170

PH HYUNDAI D/C	\$10,582	COMP. REBATE	\$1,000
LEASE CASH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369 + TAX

(STK #065945) Demo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다양한 차량과 색상 보유!
자체 파이낸싱과 특별할인 프로그램!



Sales
스티브 장
626.513.4005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PH 푸엔테힐스 현대 PUNTE HILLS HYUNDAI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